

Agent “M”*

—‘혐오’의 장치와 리빙 데드의 (비)인간

권두현**

1. 신체 또는 행위주체의 카르토그래피를 향하여
2. ‘메디컬(Medical)’ 기술: 1990년대 한국의 젠더화된 의료행위적 현실
3. ‘미스터리(Mystery)’라는 담론: 괴담과 전설에 나타난 ‘되기’와 ‘변신’의 모순
4. ‘맨(Man)’의 정동: <M>이라는 현상 또는 회절의 백래시적 상연
5. ‘인간’의 대안적 정의와 포스트휴먼의 존재론을 위하여

국문초록

이 글은 낙태 문제를 다룬 텔레비전 드라마 <M>을 물질성, 관계성, 행위주체성 등의 이론적 초점과 연결시켜 행위적 현실(agential reality)의 축도로서 회절적으로 독해하려는 시도다. 캐런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agential realism)에 따르면, 텔레비전 드라마 <M>은 당대의 의료 기술, 괴담과 전설, 그리고 남성중심적 정동 등의 물질적이고 담론적인 장치들의 행위적 내부작용을 통해 산출된 사회문화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는 기술, 담론, 정동 등의 장치들을 통해 ‘혐오’를 반복적으로 드러내는데, 이는 여성의 젠더화된 신체를 향한다. 성형과 낙태라는 물질적-담론적 실천은 몸을 둘러싼 행위적 현실이 의료 기술은 물론, 젠더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1161).

**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 전임연구원

화된 혐오의 정동과 긴밀하게 엮여 있다는 사실을 예증한다. 이와 관계된 또 다른 물질적-담론적 현상으로서 괴담의 유행과 전설의 재발견 역시 탈자연화된 몸에 대한 혐오의 정동으로부터 생산되고, 이 정동을 다시 한 번 확대재생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정동 환경 속에서 등장한 〈M〉은 회절(diffraction)을 상연하는데, 이는 테크노-신체의 물질화에 대한 포스트휴먼적 함축을 결여한 채 백래시의 역행적 힘에 따라 이루어진다.

〈M〉은 역사적으로 틀 지워지고, 맥락 속에서 정의된 ‘인간(Man)’에 대한 휴머니즘적 가정들을 보편적인 정의(justice)로서 앞세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휴머니즘의 젠더화된 정의(definition)일 뿐이다. ‘낙태죄’ 폐지 이후, COVID-19 감염증 유행과 함께, 의료 기술 및 담론, 신체적 물질을 둘러싼 정동이 격렬히 내부작용하는 현재는 〈M〉이 애써 거부한 인간의 대안적 정의에 대해 신중하게 사유하고 응답해야 할 때다.

(주제어: 행위주체, 행위적 실재론, 수행적 유물론, 회절, 낙태, 젠더, 정동, 혐오, 테크놀로지, 드라마, 〈M〉)

1. 신체 또는 행위주체의 카르토그래피를 향하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입법부로 하여금 2020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0월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낙태죄를 존치시키면서 임신 주수로 낙태 처벌 기준을 정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같은 해 8월에 발표된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각계각층에서의 논란을 격화시켰다. 공식적인 입법예고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20년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 한 여성 100인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데 이어,¹⁾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물론, 여권에서도 일제히 퇴행을 비판했다.²⁾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하는, 위헌적 법 개정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마침내 '낙태죄'가 폐지됨으로써 이 형벌의 역사는 종언을 고했다. 하지만 "아이를 떨어뜨려 죽인다"는 의미를 내포한 낙태(墮胎)의 사회문화적 통념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안적 후속입법이 요구되고 있는 한편, 의료계는 선별적 낙태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시술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 '낙태죄'가 폐지된 2021년 현재에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임신중지를 둘러싼 논란 및 혼란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상징적 사건의 실질적 한계로부터 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침해하는 여성의 권리 중에서 오로지 자기 결정권만을 언급하고, 나머지 권리는 판단 내용에 포함하고 있을 뿐, 권

1) <호주제 폐지 이끌어낸 여성 100인 "낙태죄도 전면 폐지하라">, 『경향신문』, 2020.9.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81608001&code=940100#csidx8bc5b0be2bffe1dbf7aac018723bc65 (접속일: 2021.2.14.)

2) <권인숙 "14주 낙태는 역사적 퇴행 ... 낙태죄 전면 폐지 개정안 발의할 것">, 『경향신문』, 2020.1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71124001&code=940100#csidxca75056911ae3ca847fea6cfce2b7f8 (접속일: 2021.2.14.)

리를 목록화하지 못했다. 또한 태아의 모체 밖 ‘독자적 생존’ 가능성이라는 가상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라는 모호한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하도록 강제할 가능성을 남겨 두었던 것이다.³⁾

그렇다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한계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임신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는 점,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대립 관계로만 보지 않고 태아의 여성에 대한 의존성, 출생 이후 여성의 양육 책임 등을 들어 태아와 여성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점, 법이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법적 보호를 달리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 중단 허용 필요성을 지적하였다는 점, 낙태죄가 낙태 감소에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였다는 점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의의 또한 분명하다고 평가된다.⁴⁾ 더 나아가, 이러한 평가는 낙태가 단순히 법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윤리적 문제로서, 산모와 태아는 물론, 신체와 기술, 사회와 경제가 두루 얽힌 다차원적 현상이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캐런 바라드(Karen Barad)에게 있어 ‘현상’은 ‘개체’를 대체하는 존재의 단위에 해당한다. 바라드는 과학실천에 있어 관찰대상과 주체(인식대상과 주체)가 분리불가능하게 얽혀 있는 현실, 즉 ‘현상’을 ‘행위적 실재론 (agential realism)’의 차원에서 설명한 바 있다.⁵⁾ 바라드는 행위적 실재

3) 김동식 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ii 쪽.

4) 김동식 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ii 쪽.

5) Karen Barad, “Agential Realism: Feminist Interventions in Understanding Scientific Practices”, *Science Studies Reader*, Mario Biagioli (ed.), New York: Routledge, 1999, pp.1-11. 이 글의 번역문으로는 캐런 바라드, 『행위적 실재론-과학실천 이해에 대한

론을 표명한 자신의 글에서 양자물리학에 관한 닐스 보어(Niels Bohr)의 인식틀을 빌려와 과학실천에 있어 관찰의 '장치(apparatus)'가 수동적인 '도구'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나노기술자 돈 아이글러(Don Eigler)의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되는데, 아이글러가 나노를 발견한 도구인 STM(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주사 터널링 현미경)은 단순히 연구 대상을 발견해주는 최첨단 실험도구가 아니라 (원자 조작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발명과 (이렇게 발명된 지식이 "진리"라는 점을 나노 이미지로 "증명하는") 재현을 동시에 수행하는 장치다.⁶⁾ 요컨대, 장치는 '주체'와 '대상' 둘 다를 구성하면서 작동하며, 현상을 생산하는 동시에, 현상의 일부로서 포함된다. 관찰 장치는 특정한 사회적 과정과 관련되고 그로부터 형성되며, 특정한 사회적 과정을 형성하기도 하는 그 자체로 복합적인 '물질적-담론적(material-discursive)' 현상인 것이다.⁷⁾ 장치와 현상에 대한 바라드의 이와 같은 이해는 관찰 장치들이야말로 권

여성주의적 개입, 박미선 역, 『문화과학』 제57호, 문화과학사, 2009 참고.

- 6) "STM을 시각화 기술로 이용할 때 (즉 이미지 방식에서) 나노는 이미지화되는 표면의 일부(즉 관찰대상)이다. STM을 이용하여 원자들을 재배열하는 조작방식에서 나노는 STM 탐침의 일부(관찰행위의 주체)가 된다." 캐런 바라드의 글을 번역한 박미선의 '역자 노트' 참고. 캐런 바라드, 『행위적 실재론-과학실천 이해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 박미선 역, 『문화과학』 제57호, 문화과학사, 2009, 63쪽.
- 7) "'물질적-담론적'이란 용어는 물질적인 것과 담론적인 것(물질적인 것에 대한 분석)의 분리불가능성을 지칭한다. 나는 '담론'을 푸코적인 의미에서 이해한다. 즉, 권력의 생산적 차원을 강조한 담론적 실천으로서 말이다(M. Foucault, *The Archeology of Knowledge and The Discourse on Language* [New York: Pantheon, 1972]). '물질적'은 물리적, 생물학적, 테크놀로지적, 경제적, 기타 가능한 함축의미를 포함하여 다양한 많은 함축 의미를 지닌다. 혹자는 푸코의 담론 개념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학연구에서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논쟁지점이기도 하다. 푸코는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경계구분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며 이는 그가 대상의 물질적 성격을 당연시하는 대목에서 그의 저작에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캐런 바라드, 『행위적 실재론-과학실천 이해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 박미선 역, 『문화과학』 제57호, 문화과학사, 2009, 67쪽.

력의 테크놀로지라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이해와도 상통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공명은 바라드의 과학실천에 관한 문제의식이 과학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인식론적-존재론적(epistem-onto-logical) 문제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컨대, 권력, 지식, 존재는 물질적-담론적 실천 속에서 서로 결합된다.⁸⁾

이러한 결합은 요소들 간의 기존 관계가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표출하며 기존의 관계를 변화시키기에, 절합(articulation)이라 불려야 한층 타당할 것이다. 캐런 바라드는 절합 대신 이와 같은 차이의 관계적 본성을 ‘회절(diffraction)’이라 일컬었다.⁹⁾ 차이를 만드는 차이들의 패턴으로서의 회절은 관계와 뒤얽힘에 대한 사유로서 행위적 실재론의 핵심에 놓인다. 권력, 지식, 존재가 뒤얽힌 행위적 실재론은 행위주체들의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담론적인 실천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종종 신유물론과 등가적으로 이해되지만, 사실상 신유물론은 ‘생기론적 신유물론’, ‘부정적 신유물론’, ‘수행적(performative)’ 또는 ‘방행적(方行的, pedetic)’ 신유물론 등 다양한 흐름을 그리며 전개되어 왔다.¹⁰⁾

8) 캐런 바라드, 『행위적 실재론-과학실천 이해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 박미선 역, 『문화과학』 제57호, 문화과학사, 2009, 78쪽.

9) 사물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고 그 개체를 정확하게 다시 재현하는 과정을 ‘반사’라는 은유로 담아내려는 재현론자의 시도와 대조적으로, 바라드는 물체가 빛과 같은 파동에 영향을 주어서 파동의 진행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현상인 ‘회절’ 개념을 차용하여 물체와 관찰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수현, 『과학적 실천이론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접점: 캐런 바라드의 경우』, 『한국여성철학』 제25권, 한국여성철학회, 2016, 76쪽 각주 19번 참고.

10) 생기적 신유물론, 부정적 신유물론, 수행적(방행적) 유물론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 Christopher N. Gamble, Joshua S. Hanan & Thomas Nail, “What is New Materialism?”, *Angelaki*, Vol.24 No.6, 2019. 크리스토퍼 갬블, 조수아 하난, 토마스 네일은 ‘신유물론(new materialism)’이라고 뭉뚱그려진 범주 내에서 분기하는 부정적 신유물론, 생기적 신유물론, 그리고 수행적 신유물론의 의의와 한계를 구별시켜 설명한 바 있다. 이 글에 대한 번역은 박준영에 의해 작성되어 온라인 번역 플랫폼 ‘호랑이의 도약’에 공개

크리스토퍼 N. 갬블(Christopher N. Gamble)과 조수아 S. 하난(Joshua S. Hanan), 그리고 토마스 네일(Thomas Nail)은 이 가운데 수행적 신유물론만이 인간과 물질 사이의 어떤 이산적(discrete) 분리를 급진적으로 침식한다고 주장하는데,¹¹⁾ 캐런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은 총체적으로 '수행적'이고 '관계적'이며 '생성적'인 유물론을 지향한다. 바라드에게 있어, 행위주체성(agency) 또는 생명성(vitality)은 특정한 내부작용적(intra-active) 실천과 분리된 채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수행'과 '관계'와 '생성'은 상호작용(inter-action)하는 개체가 아니라, 내부작용(intra-action)하는 현상의 존재 양태다. 이 뒤엎힘의 관계는 존재론적 실재(the ontological real)를 수행적 과정으로 이끌며,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를 생성하는데, 여기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회절이다. 요컨대, 회절은 행위적 현실의 흔적이다.

행위적 실재론에 따르면, 낙태 문제는 산모와 태아가 분리불가능하게 뒤엎힌 행위적 현실과 함께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몸이라는 물질적 신체를 둘러싼 젠더정치를 파악하는 일이기도 하다.¹²⁾ 텔레비전 드라마 <M>은 상이한 방식으로 물질화되는 몸들을 통해 <M>은 이와 같은 젠더정치의 일단을 검토할 수 있는 단서들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이고 담론적인 장치들에 의한 회절을 통해 당대의 행위적 현실을

되었다. <http://tigersprung.org/?p=2494> (접속일: 2021.2.14.)

11) Christopher N. Gamble, Joshua S. Hanan & Thomas Nail, "What is New Materialism?", *Angelaki*, Vol.24 No.6, 2019.

12) "젠더 정치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행위주체성, 신체, 관계성, 문화와 자연의 경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정확하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Joseph Rouse, "Feminism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ientific Knowledge", *Feminism, Science,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J. Nelson (ed.), Kluwer Academic Pub, 1997, p.202; Joseph Rouse, *Engaging Science: How to Understand its Practices Philosophically*, Cornell Univ Press, 2010, p.146.

폭넓게 시야에 담도록 이끈다. 1994년 여름, MBC의 ‘납량 특집 드라마’라는 예외적인 편성을 통해 소개된 〈M〉은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역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 SF 장르의 작품 가운데 하나다.¹³⁾ 이 장르는 대문자 “M”이라는 기표와 함께 ‘메디컬(Medical) 미스터리(Mystery)’라고 소개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혼종이 돌출적으로 등장했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장르적 접근은 혼종성의 부분적 속성만을 주목하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그 접근 자체를 의문시하게 만드는 설명에 그칠 확률이 크다. 실제로 〈M〉은 ‘과학(의학)’과 ‘공포’라는 상이한 호명을 통해 다른 자리로 소환되어 그 재현의 일측면만을 드러내 왔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장르적 접근은 텍스트가 등장한 역사적 조건과 텍스트의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대문자 “M”이 ‘메디컬’ ‘미스터리’일 뿐만 아니라, 남성(Man)의 기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 텍스트의 등장은 ‘메디컬 미스터리’와 ‘남성’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온전히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¹⁴⁾ 따라서 이 글은 텔레비전 드라마 〈M〉을 재현주의적 차원에 내맡기는 것으로는 텍스트의 동학은 물론, 텍스트를 맥락화하는 역사적·사회적 동학을 읽어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카르토그래피(cartography)의 방법론을 취한다.¹⁵⁾ 이와 같은 접근법은 물질과 담론, 더 나아가 텍스트와 콘텍스트

13) 이흥구 극본, 정세호 연출, 〈M〉, MBC, 1994.8.1.~1994.8.30.(총10부작) ‘납량 특집 드라마’로서 〈M〉이 방영된 1994년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대구와 밀양 39.4도, 서울 38.4도까지 수은주가 치솟으면서 1904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의 찜통더위가 전국을 달궜다. 이는 텔레비전 드라마 〈응답하라 1994〉(tvN, 2013)를 통해 소환된 기억이기도 하다.

14) 텔레비전 드라마 〈M〉의 제작진은 ‘M’이라는 작품의 제목이 메디컬(Medical), 미스터리(Mystery), 맨(Man)의 첫 글자라고 밝힌 바 있다.

15)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변신’으로 연표되는 유목적 주체성을 설명하는 자신의 이론에서 카르토그래피가 공간(지리정치적 또는 생태학적인 차원)과 시간(역사적이고 계보학적인 차원) 모두의 용어로 위치를 설명할 수 있고, 제한하는 권력으

가 뒤엎힌 '현상'을 주목케 한다. <M>은 산모의 몸으로부터 절단되고, 다시 한 번 신체의 절단을 반복해 끝내 '분자'가 된 태아의 기억이 여성의 몸에 유입되어 행위주체성을 발휘한다는 독특한 설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메디컬 드라마'가 이제 막 담론화되었을 시점에 등장한 '미스터리'로서 <M>의 존재는 이처럼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여러 모로 파격적이었다. 이 파격을 보다 조리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M>이라는 돌출적인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형상으로서 산모와 태아의 신체, 더 나아가 (탈)의료화된 시선에 포착된 또 다른 신체들의 유물론적 지도 그리기(mapping)로서의 카르토그래피가 유효하다.

물질적-존재론적 접근으로서의 카르토그래피는 인간과 비인간, 생물과 무생물까지를 포함하여 물질적이고 상징적이며 구체적이고 담론적인 존재들이나 힘들 사이의 횡단적 연계들을 전경화한다. 따라서 카르토그래피는 주체의 위치 또는 배치를 문제 삼는 관계적 존재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카르토그래피적 지도에 위치한(배치된) 주체는 어디까지나 체현된(embodied) 주체다. 체현을 통해 주체는 '신체'로 재등록된다. 체현은 신체들의, 신체와 살된 존재(fleshy beings)로서의 환경의 연결과 의존의 양태를 가리킨다. 연결과 의존의 존재론에 따른 신체는 생

로서 포테스타스(potestas)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권력으로서 포텐티아(potentia)의 관점에서 위치들의 대안적인 형상 또는 재현 체제를 제공하는 접근법이라고 간주한다. 로지 브라이도티,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김은주 역, 꿈꾼문고, 2020 참고. 다른 한편으로, '객체 지향 존재론'을 주창하는 레비 R. 브라이언트(Levi R. Bryant)는 자신의 이론을 '존재지도학(Onto-catography)'이라고 명명했다. 캐런 바라드가 존재의 단위로서 '현상'을 제시했다면, 레비 R. 브라이언트(Levi R. Bryant)는 '기계'를 제시한다. 브라이언트에 따르면, 기계들, 다시 말해 존재자들은 시시각각 다른 기호적, 물질적, 상징적 흐름과 마주친다. 이 마주침 속에서 각각의 기계들은 "구조적 개방성과 조작적 폐쇄성"이라는 역능을 발휘하는데, 흐름은 이에 따라 절단되거나 변형되거나 가속되고, 감속된다. 레비 R. 브라이언트, 『존재의 지도-기계와 매체의 존재론』, 김효진 역, 갈무리, 2020 참고.

물학적 본질이라기보다, 강도적 힘들의 교차로이며, 사회적 코드들이 등록되는 표면으로 자리매김된다. 다시 말해, 신체적 물질은 힘들(정동들)과 공간-시간 변수들(연결들)을 가로지르는 과정을 통해 체현된 주체의 위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체현된 주체는 연결과 의존의 존재론적 조건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비로소 활기를 드러내는 '행위주체(agent)'로 다시 부를 수 있다.¹⁶⁾

따라서 이 글은 낙태 문제를 다룬 텔레비전 드라마 〈M〉을 물질성, 관계성, 행위주체성 등의 이론적 초점과 연결시켜 행위적 현실(agential reality)의 축도로서 회절적으로 독해하고자 한다. 이는 〈M〉이라는 축도가 단순한 허구나 공상이 아니라 몸을 둘러싼 현상, 다시 말해 물질적인 동시에 담론적인 실천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물질적-담론적 실천들의 관계함과 함께 이 작품이 놓인 전체적인 배치 또는 존재론적 지도를 시야에 담은 작업과 함께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이는 결국 분석적 상식으로 주어진 재현주의 너머에서 텍스트가 맺고 있는 정동적 힘-관계의 물질적이고 담론적이며, 사회적이고 과학적인, 인간적이면서 비인간적인, 자연적이면서 문화적인 요인들을 구체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목표에 따라 이 글은 표상과 미학이 아니라 존재와 환경을 염두에 두고, 〈M〉이라는 축도를 다시 한 번 1990년대의 존재론적 지도로서 펼쳐 보일 것이다.

16) 레비 R. 브라이언트는 행위주체의 행위주체성이 하등한 박테리아에서 발견되는 행위주체성에서 위로는 기관과 국가가 발휘하는 행위주체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한편, 행위주체와 구분되는 '주체'는 인간과 비인간이 공히 그리고 생물과 무생물이 공히 일시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기능적 용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비 R. 브라이언트, 『존재의 지도-기계와 매체의 존재론』, 김효진 역, 갈무리, 2020, 32쪽.

2. ‘메디컬(Medical)’ 기술: 1990년대 한국의 젠더화된 의료행위 위적 현실

“현재 그녀의 기억은 18세의 마리와 지난 8년 동안의 기억만을 갖고 있는 의사 주리 사이를 왕복하고 있다. 그러나 곧 마리와 주리 사이를 잇는 고리를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녀 안에 잠재되어 있는 M이 언제 그녀를 지배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M은 그녀가 아직 태어있던 때 수술 도구에 의해 그녀 안에 유입된 기억분자이다. M의 기억분자는 엄청난 파괴 에너지를 지녔다. 마리의 인격은 3인의 교차 인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마리의 인격. 두 번째는 내가 만들어준 의사 주리의 인격. 세 번째 인격이 문제이다. 나는 그 수수께끼의 인격에 M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M〉, 제5회, 프롬 박사의 내레이션)

기술 문화에 의해 유도된 사회적, 문화적, 상징적 돌연변이에 해당하는 ‘그녀’는 신체적인 경계의 삭제와 위반을 수반하는 복잡하고 다중적인 전이 상태에 있다. 이는 각각 성공과 실패로 귀결된 이중의 낙태를 통해 초래된 것이다. 〈M〉의 주인공 마리는 낙태에 실패해 탄생한 여아이고, M은 낙태로 인해 분자화된 실재다. 마리 또는 주리, 그리고 M의 인격이 교차적으로 출현하는 ‘그녀’는 비통일적이고 분열된 주체다.

엘리자베스 그로스(Elizabeth Grosz)는 주체성의 원료로서 몸에 주목했다.¹⁷⁾ 이를 캐런 바라드 식으로 바꾸어 말해볼 수 있다면, 몸은 존재론의 질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몸이라는 질료는 흔히 개인의 욕망에 따라 재건된다고 믿어지지만, 비체(abstract)로서의 M이 마리의 몸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몸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욕망, 보

17) 엘리자베스 그로스, 『몸 페미니즘을 향해: 무한히 변화하는 몸』, 임옥희·채세진 역, 꿈꾼문고, 2019.

다 정확히 말해 ‘행위주체성’의 토대가 된다. 여기서 <M>은 낙태라는 의료행위와 함께 다른 아닌 기술이 몸과 함께 뒤얽히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1990년대에 그 언표와 전형을 확보한 ‘메디컬 드라마’는 몸과 기술의 이러한 뒤얽힘의 양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서 자리하고 있다. <M> 역시 메디컬 드라마의 자장 안에 놓여있음은 물론이다. <M>이 방영된 1994년에는 비단 <M>뿐만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의 드라마들이 속속 등장했다. 특히 ‘드라마 왕국’이라는 명성을 획득해가고 있던 MBC의 시도들이 두드러졌다. ‘메디컬 드라마’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스타일의 드라마 가운데 하나였다.

<M>보다 조금 앞서 같은 해에 방송된 <종합병원> 역시 메디컬 드라마에 해당한다.¹⁸⁾ 1980년, KBS 1TV에서 방영된 <소망>을 기점으로 <당신>(MBC, 1984), <제7병동>(KBS 2TV, 1988) 등의 드라마가 있었지만, <종합병원>이 방영된 이후 비로소 많은 ‘메디컬 드라마’가 ‘병원 드라마’, ‘의학 드라마’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대중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성장 서사를 중심축으로 삼는¹⁹⁾ <종합병원>은 현시점에서는 메디컬 드라마의 ‘전형’이라고 평가되지만,²⁰⁾ 방영 당시로서는 전문직 청춘 남녀의 연

18) 최완규 극본, 이주환 연출, <종합병원>, MBC, 1994.4.17.~1996.3.3.(총92부작)

19) 원용진·이준형·박서연·임초이는 토도로프의 시퀀스 분석을 활용하여 <종합병원>의 서사를 다음과 같이 분절한다. “주인공들은 일반 외과의 수련의들이다(서사명제 1). 수련의들은 실수를 질책하는 상급자들과의 갈등상황이나 환자의 고통 호소와 죽음과 마주한다(서사명제 2). 수련의들이 내적, 외적 갈등상태에 놓인다(서사명제 3). 수련의들은 동료나 상급자로부터 질책 당하거나 조언을 듣는다(서사명제 4). 서사 구조의 마지막 안정상태에 진입하며, 수련의들은 최초의 안정상태보다 전문의로서 더 성장하게 된다(서사명제 5). 이때 바호친적 사건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서사명제 2), 동료 혹은 상급자와의 갈등이나 대화를 통한 해소(서사명제 4)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원용진 외, 『메디컬 드라마의 크로노토프』, 『대중서사연구』 제25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9, 186쪽.

애를 다룬, 엄연한 '트렌디 드라마'였다. <종합병원>의 '트렌디'한 요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텐데, 이 가운데 하나는 시즌제로 이어진 장기간의 방영에 따른 등장인물의 등·퇴장과 관련되어 있다. <종합병원>에서 등장인물은 환자는 물론 의사에 이르기까지, 종종 질병으로, 근본적으로는 과로와 피로로 인해 퇴장하고, 이 자리에는 종종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²¹⁾ 의사라는 휴머니즘적 주체를 대신하여, 메디컬 공간의 노동하는 신체가 사명감 못지않은 피로감을 앞세우며 아픈 몸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일시적 트렌드라기보다도 존재론적 전회가 야기한 대중문화적 징후로 짐작해볼 수 있다. 사명감이 주체의 의지라면, 피로감은 '몸으로 생각하기', 즉 정동에 해당한다. 사명감은 몸을 초월한 정신이지만, 피로감은 그 정신을 다시 (아픈) 몸에 붙들어 맨다.

이러한 몸들을 둘러싼 메디컬 공간은 최첨단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고 해서 메디컬 드라마가 포스트휴면을 재현하거나 포스트휴머니즘을 역설했다고 곧바로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메디컬 드라마는 병균에 의해 '오염된·이상한' 몸으로부터 '순수한·정상적' 몸을 추출하는 의사의 승고를 드러내는 데 반

20) 이와 관련하여 문선영은 <종합병원>이 의학 드라마라는 장르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며 한국 의학 드라마의 전형을 만들어냈으며, <종합병원>의 성공 이후 의학 드라마가 주로 멜로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복잡한 서사와 캐릭터를 선보이는 형태로 발전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문선영, 『TV드라마의 과학적 상상력: 『M』, 『RNA』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2집(23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319-320쪽.

21) 레지던트 안미현(홍리나 분)은 과로로 쓰러져서 또 다른 레지던트 백현일(전광렬 분)의 간호를 받는다. 역시 레지던트인 이정화(신은경 분)는 결핵에 늑막염 판정을 받고 무리하다가 쓰러졌으며, 결핵 증상이 악화된 외중에도 휴직 권고도 뿌리친 채 근무를 이어가지만 끝내 휴직을 선택한다. 간호사 강순영(전도연 분)은 작중 유방암이 의심되어 한동안 심란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간호사 윤혜미(박성미 분)는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암환자를 돌보다가 갑작스러운 산통으로 쓰러진다. 레지던트 강대중(주용만 분)은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한 동료의사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데, 강대중 또한 한만용(김환교 분)과 다투던 외중 맹장염으로 쓰러진다.

복적으로 그 내러티브를 할애한다. 이 내러티브는 의학 멜로드라마로서 메디컬 드라마의 시적 정의(poetic justice)에 따른 것이며, 여기에는 돌봄 윤리(care ethics)가 내포되어 있다. 메디컬 드라마의 이와 같은 전형적 서사는 익숙한 휴머니즘적 가정을 의심 없이 수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휴머니즘적 정의를 재현하려는 그 의도와는 달리, 포스트휴먼 '되기'로 나아가는 길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환자와 의사는 언제나 '수술'이라는 기술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며, 매체로서의 이 기술은 수술 '전후'의 몸이 아니라 행위주체들의 몸을 '동시에' 바꾸기 때문이다.

요컨대, 가변적 물질로서의 몸을 중심에 둔 존재론적 전회는 테크놀로지와 함께 이루어졌다. 앤 마리 발사모(Anne Marie Balsamo)가 주목한 바 있는 '몸의 기술'²²⁾로서의 테크놀로지는 몸의 외부에 부착된 단순한 보철이 아니라 몸과 분리 불가능한 관계를 이루며 내부작용하는 물질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된 인공관절 또는 인공치아, 지방흡입과 성형수술 등은 이를 예증한다. 더 나아가, 생명 공학의 인간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HGP)는 휴머니즘의 전제를 탈피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비로소 신체는 포스트휴먼으로의 존재론적 전회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신체에 접속하는 테크놀로지는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심지어 생명을 구제한다고 종종 홍보되지만, 이러한 낙관주의는 어디까지나 예측불가능

22) “예를 들면, 자궁은 모성의 몸이 여성의 몸의 본질적인 정체성임을 재강화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젠더를 의미화한다. 이런 의미에서 젠더는 몸과 기술 사이의 다양한 관계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권력관계를 조직화하는 장치이다. 나는 몸과 기술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젠더화된 몸의 기술들’(technologies of the gendered body)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이러한 도식에서 젠더는 기술적 배치를 결정하는 문화적 조건이자 동시에 기술적 배치의 사회적 결과이다.” 앤 마리 발사모, 『젠더화된 몸의 기술사이보고 여성 읽기』, 김경례 역, 아르케, 2012, 28쪽.

성이 전제된 ‘잔혹한 낙관주의’로 몸을 감싸며 몸 체험의 정치성을 탐문하게 만든다.²³⁾ 특히 여성의 몸을 중심으로 몸 체험이 거듭 논쟁에 부처졌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먼으로의 존재론적 전회는 다분히 젠더화된 인식론을 경유하며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형과 낙태를 둘러싼 쟁점들을 통해 검토 가능하다.²⁴⁾ 이 가운데 성형은 ‘사이보그 프로젝트’의 일종으로서, 다양한 몸의 상연(enactment)을 동반한다. 성형이 약속하는 심미적 향상이란, 그 몸들의 내적 작용이기 때문에 완벽한 통제나 예측이 불가능하다.²⁵⁾ 성형이라는 약속은 테크놀로지를 몸에, 살(flesh)에 기입하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비단 기술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동과 이에 대한 반동이 동시에 각인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체현(embodiment)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체현은 정동적 자율성에 따른 몸의 해방이나 향상 같은 것이

23) 로렌 벨렌트, 『잔혹한 낙관주의』,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정동 이론』,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갈무리, 2015, 161-205쪽.

24) “미용성형수술의 담론은 젠더화된 몸의 문화적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자극적인 소재를 제공한다. 한편으로 그러한 담론이 의도하고 선호하는 주체는 흔히 여성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술을 수행하는 몸들은 보통 남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용성형수술은 ‘여성의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한 담론적 장소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여성의 몸이 신체적인 외모의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기준들에 따라 외과적으로 해부되고 잡아당겨지고 잘려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실질적인 물질적 장소이기도 하다.” 앤 마리 발사모, 『젠더화된 몸의 기술사이보그 여성 읽기』, 김경례 역, 아르케, 2012, 34쪽.

25) 이상 포스트휴먼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형에 관한 논의는 임소연, 『성괴를 위한 변명: 사이보그 프로젝트로서의 성형수술』,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과학기술학회, 2017.5. 참고. 성형이라는 ‘약속’은 정동 이론이 즐겨 사용하는 어휘로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여겨지는 ‘예측’과 구별된다. “pro(앞/전에)+mittere(놓다, 보내다)”라는 어원을 지니는 약속은 미리/앞서 내놓는다는 뜻으로, 현재에 이미 미래에 대한 전망이 기입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정동적 약속의 장소 가운데 하나로써 다양한 사회적 힘들이 교차하는 젠더화된 몸이 존재한다. ‘약속’과 ‘예측’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권명아, 『젠더·어펙트 연구에서 연결성의 문제: 데이터 제국의 도래와 ‘인문’의 미래』, 『석당논총』 제77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0 참고.

아니라, 어디까지나 젠더화된 정동을 몸에 입는 것이다. 1990년대는 영상 미디어의 영향력이 문자 미디어의 영향력을 압도하기 시작했던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영상시대’라는 공언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영상시대’를 선도했던 텔레비전, 비디오테이프 등의 영상 미디어 또는 시각화 테크놀로지와 함께 여성의 몸 또한 가시적인 미디어가 되었다. 시각화 테크놀로지의 정동적 힘은 여성의 몸을 시각적 정보, 문화적 기호, 미학적 도상으로 치환하고 성애화(sexualization)한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기호적 몸을 둘러싼 젠더화된 정동은 물질적 몸을 포획하고, 물질적 몸은 시각적으로 정보화된 기호적 몸의 규격 또는 골격을 모사함으로써 리플리컨트(replicants)가 된다.²⁶⁾ 이는 시각화 테크놀로지의 물질적-담론적 실천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실천에는 기술과 물질이 장치로서 연접(conjunction)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적 매력’을 강권하는 규범적 (담론) 권력이 교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남성적 응시(male-gaze)의 논리는 이미 로라 멀비(Laura Mulvey)에 의해,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²⁷⁾ 이와 비교해봤을 때, 텔레비전은 남성적 응시의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여성적’ 도상을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노출하면서 직접적으로 시청자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도상은 몸을 규격화하고, 이 규격을 표준화하는 규율적 장치다. 이 장치에 따라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한 여성 연예인의 몸을 향해 남성 의사가 지방흡입술을 폭로하고, 이로 인해 촉발된 광범위한 혐오의 언설이 ‘여론’의 이름으로 수렴되어 한 여성을 퇴출시켰던 사례는 이와 같은 규율의 중층적 억압을 보여준다. 여성의

26) 〈PC로 교정형태 미리 선택〉, 『매일경제』, 1990.5.27.

27) 로라 멀비, 『남성적 응시』, 쇼히니 초두리 편저, 『페미니즘 영화이론』, 노지승 역, 엘피, 2012.

몸을 강제하는 표준화된 규격이라는 억압은 어디까지나 기술의 매개를 거치지 않은 자연적 몸을 통해 도달해야만 한다는 또 다른 억압을 동반한 것이다. 이처럼 혐오의 정동과 함께 성형이라는 상연 또는 연행은 '위반'으로서 위치지어진다.

성형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차원의 상연 또는 연행으로서의 '성 전환', 즉 성별재확정 수술(gender-reassignment surgery) 또한 1990년대를 전후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성별재확정 수술의 행위주체로서 트랜스젠더(transgender) 또는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은 의료 기술과의 접촉을 통해서 재구성된 '사이보그적 섹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존재들이다.²⁸⁾ 1990년대에 이르면,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전환' 수술 성공 사례가 최초로 보고되며,²⁹⁾ 호적 성별 정정 사례 또한 함께 보도된다.³⁰⁾ 이를 둘러싼 판결 기준에 대한 논란은 즉시 격화되었고,³¹⁾ 치안의 논리를 앞세운 선별적 허용이나 금지의 언설이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트랜스젠더를 소개하는 "최초"의 수사는 그 존재를 가시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항존을 은폐하기 위해 번번이 동원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90년대에 앞서 이미 1950년대에도 "최초"의 '트랜스'는 존재했다.³²⁾ 이처럼 "최초"는 반복적으로

28) 이강원, 『젠더와 트랜스섹슈얼리즘: 성전환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인류학에 대한 성전환적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19집 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3 참고. 이 글에서 이강원은 세계보건기구마저 정신·행동 장애로 규정한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의료 범주에 종속된 용어가 아니라, 수술을 경험한 몸과 역사를 나타내는 용어로 재전유한 것이다.

29) 앤 마리 발사모, 『젠더화된 몸의 기술-사이보그 여성 읽기』, 김경례 역, 아르케, 2012.

30) 〈청주지법성전환1호〉, 『경향신문』, 1990.6.30.

31) 〈성전환판결엇갈려혼선〉, 『조선일보』, 1990.6.30.

32) 예를 들어, 1955년 8월 29일, 『조선일보』에 실린 〈미용원에 나타난 조양, 하이칼러에 파마를 하고 기자공세에 부끄러워요〉라는 제목의 기사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조양"을 다루고 있다. "조양"의 성전환 수술 경험은 『조선일보』만이 아니라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당대 여러 신문에 얼굴 사진과 함께 기사로 실렸다. 그래서인지

등장하면서 소수자의 역사적 실존을 삭제하고 이를 통해 사후적으로 ‘소수자성’을 연역해낸다. 그런 점에서 “최초”는 이성애규범적 사회의 아노미(anomie)를 가리키는 수사로서 정동적 효과를 발휘한다. 그 정동이 ‘정상성’의 규범에 포섭되지 않는 ‘이상한’ 몸을 향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최근 성별재확정 수술을 이유로 강제전역당한 변희수 부사관의 사례, 같은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한 숙명여자대학교 예비신입생 A씨의 사례는 생물학적 몸에 관한 본질주의적 정치학의 담론과 정동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한다.³³⁾

성별재확정 수술을 받은 ‘트랜스’들은 젠더를 바탕으로 몸을 재구성함으로써 본질주의적 정치학의 허구와 폭력을 드러낸다. 이들의 몸은 ‘젠더/섹스’의 개념적 이분법 자체에 도전하며, 젠더가 사회문화적 의미와 동시에 인간 몸의 생리적 성적 특성과도 밀접함을 드러낸다. 트랜스젠더는 몸의 수준에서 생산된 하나의 효과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트랜스’의 몸은 수술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의료 기술과의 끊임 없는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성된다. “물질과 기술 그리고 의학 지식과 법 제도를 능동적으로 전유함으로써 트랜스섹슈얼은 자신의 정체성

이후에 나온 기사는 “성전환 제1호 조양”이라는 식의 제목을 달기도 했다. 루인의 아가 이밍을 통해 드러난 이 사례에서 “최초”라는 명명은 사회적 소수자의 ‘대단함’이나 ‘용기’를 상찬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역사를 은폐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가 존재할 맥락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규제/안전 장치다. 루인, “Queering up history: 가장 소란스러운 아카이브”,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라〉, 2019.8. <http://www.zineseminar.com/wp/issue02/%ED%8A%B8%EB%9E%9C%EC%8A%A4-%EC%97%AD%EC%82%AC-%ED%80%B4%EC%96%B4%EB%A7%81-%EC%95%84%EC%B9%B4%EC%9D%B4%EB%B8%8C/> (접속일: 2021.2.14.)

33) 트랜스젠더가 일상적인 존재로 스며들지 못하는 이성애규범성과 성별이분법이 지배하는 현 상황, 이 세계에서 탈정치화되고 보수화되어버린 ‘래디컬’ 페미니즘에 관한 논의는 김보명, 『여성 공간과 페미니즘-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배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71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 참고.

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지배적인 젠더시스템과 자신의 생물학적 섹스 간의 괴리에 괴로워하기보다는 호르몬을 투여하거나 상담의와 거래를 하거나, 외과의와 타협을 통해서 법제도에 대한 탄원을 통해서 자신의 섹스를 구성해 나간다.”³⁴⁾ 이처럼 트랜스젠더의 몸은 기술적 구성로서 기술과 물질의 교차를 통해 전이와 횡단을 거쳐 변신해나간다. 이 변신은 성형보다 한층 더 음험한 ‘기만’으로 인식되었다.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를 내세운 립스틱 CF의 카피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만에 대한 대중적 정동을 노골적으로 환기한다. 이 정동은 사회적 기만에 대한 인식을 꾸며냄과 동시에, 이를 다시 한 번 국가적 위협으로 인식시킨다. ‘여론’을 넘어 ‘법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혐오적 프로토콜은 바로 이를 보여준다. 셀러브리티로서 하리수와 그의 미모를 매혹적으로 전시하는 미소지니(misogyny)가 예증하듯, 1990년대는 성적 소수자의 존재를 더 이상 삭제할 수 없는, 이들에게 “최초”의 수사를 동원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대였다. 이는 물질적 몸에 기입된 기술과 그 행위주체성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낙태 또한 여성의 몸에서 기술과 물질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력한 사례다. 1990년대에 이르러 가속화된 재생산 기술의 발전은 일련의 새로운 가능성들과 행위주체들을 생산했다. 난자 및 정자 기증자는 물론, 시험관, 더 나아가 난자와 정자, 그리고 태아가 사회적 행위주체들로서 대두되었던 것이다.³⁵⁾ 각각의 행위주체들은 서로

34) 이강원, 「젠더와 트랜스섹슈얼리즘: 성전환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인류학에 대한 성 전환적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19집 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3, 21쪽.

35) 조주현은 배아줄기세포 기술에서 새롭게 획득된 개체적 존재로서의 ‘난자’의 의미가 1960년대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의 국가의 여성출산력 조절 정책, 1980년대 국가의 출산력 조절, 가부장제 가족의 유지, 그리고 신출산 기술의 상호규정의 결과로 나타

뒤엎힌 채,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낙태를 둘러싼 현상들을 다시 한 번 생산한다. 임소연은 캐런 바라드의 ‘행위적 절단(agential cut)’ 개념을 전제로,³⁶⁾ “낙태라는 현상으로부터 이 두 존재를 잘라냄으로써 어떤 결정이 가능해졌고 어떤 존재가 배제되었는지를 해명하고 이 현상에 어떤 실천, 기술, 정책, 제도 등이 얽혀 있는지(횡단하는지, 교차하는지)를 추적해야 한다”고 말한다.³⁷⁾ 〈M〉이 방영된 1990년대에 낙태는 신체에 대한 기술적 침식 또는 간섭이기에 앞서, ‘범죄’로 규정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적 규정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이는 존재론적 실재로서 ‘현상’이 아닌 ‘개체’를 전제하고 태아와 여성을 적대적으로 분리시킨 결과다. 1990년대의 낙태는 임신한 여성의 선택권과 대립하는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담론화되었고, 이는 제도로서의 ‘낙태죄’를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사회·정치적 맥락에 얽힌 낙태죄 제·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는 신유나와 최규진에 의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제출된 바

난 여아 선별 낙태 현상, 1990년대 시험관 아기시술을 통해 구현된 도구적 모성의 연장선상에서 어디까지나 역사적 근거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논한 바 있다. 조주현, 『난자: 생명기술의 시선과 여성 몸 체험의 정치성』, 『한국여성학』 제22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06.

36) “바라드는 내부작용 중에서도 얽혀 있는 현상의 단면을 잘라서 주체와 대상을 드러내는 작용, 즉 주체와 대상의 분리라는 효과를 일으키는 내부작용을 ‘행위적 자름(agential cut)’이라고 부른다.” 임소연, 『캐런 바라드: 페미니스트 과학자는 낙태를 어떻게 보는가?』, 김환석 외,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전 지구적 공존을 위한 사유의 대전환』, 이성과감성, 2020, 132쪽. 행위적 절단에 대한 또 다른 언급으로서 임소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학적 분석 역시 단순히 여성들의 기술과학 실행을 관찰하는 행위가 아니라 분석자와 분석 대상,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 혹은 행위자적 존재와 대상화되는 존재 등의 ‘경계’를 세우는 “행위적 절단(agential cut)”이다.” 임소연, 『과학기술과 여성 연구하기: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의 안-사이에서 “몸과 함께”』, 『과학기술학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과학기술학회, 2019, 108쪽.

37) 임소연, 『과학기술과 여성 연구하기: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의 안-사이에서 “몸과 함께”』, 『과학기술학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과학기술학회, 2019, 134쪽.

있다.³⁸⁾ 이 가운데 1990년대 상황과 관련해서 논자들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정부법안(낙태죄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종교계는 아예 이 개정안을 “낙태허용법”으로 규정하고 1992년 7월 13일부터 “낙태허용법 입법 폐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나아가 이들은 1993년 모자보건법 위헌제청까지 준비했다. 이러한 운동을 기반으로 1994년에는 낙태반대운동연합이 결성되었고, “낙태관련형법개정안 통과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대중 캠페인을 진행하였다(한겨레, 1992; 한겨레,

38) 1950년대 한국은 분단과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많은 여성들이 사회경제적 곤란으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국력 강화를 위해 인구증가가 필요하다고 여겨, 형법에 낙태죄를 포함시켰다. 반면,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을 위해 인구억제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가족계획사업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피임에 초점을 맞춘 가족계획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컸기에, 모자보건법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낙태죄를 사문화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럼에도 형법에 낙태죄가 명시된 이상 여성들이나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는 경제지표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정권 입장에서도 곤란한 것이었다. 결국 1987년과 1992년에 형법의 낙태죄를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낙태의 허용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낙태죄를 존치시키고, 낙태한 여성에게만 죄를 물어 큰 틀에서 기존의 가부장성을 고수하면서도, 실질적인 낙태의 허용효과를 꾀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종교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인구구조 변화가 감지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아예 인구증가정책으로 기조도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진보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낙태죄는 폐지되지 않았고, ‘저출산 정책과 같은 국가주의적 인구정책마저 계승됐다.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던 낙태죄는 급기야 이명박 정권의 낙태에 대한 보수적 접근과 결합하면서 2009년 ‘프로라이프 의사회’ 사건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결정이 나왔으나, 사회적으로는 여성운동의 중심의제에 낙태 문제가 포함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에서 촉발된 낙태죄 논쟁은 또다시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송으로 나아갔고, 결국 정권교체까지 이뤄낸 민주화운동과 여성운동의 상승이라는 배경 속에서 ‘헌법불합치’로 종결되었다. 신유나·최규진, 『낙태죄 제·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 사회·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20권 제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0 참고.

1993; 한겨레, 1994; 동아일보, 1994). 물론 이전에도 종교계·보수계를 중심으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주장해 모자보건법의 제·개정 시도를 저지한 전적이 있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운동으로까지 나타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³⁹⁾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가 가임여성 인구로 진입하게 되는 1980년 전후부터 강한 출산 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는 개인의 가치변화를 유도하면서 출산율 감소로 나타났다.⁴⁰⁾ 출산율이 예상보다 빨리 감소하자, 정부는 1990년 전후부터 적극적인 출산 억제정책을 완화—예를 들면, 피임이나 인공유산에 대한 지원 중단—하면서 출산율이 잠시 증가했다.⁴¹⁾ 이러한 상황은 낙태를 ‘반역’으로 범죄화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했다. 낙태를 범죄라고 단정 짓는 이 논리는 과학기술은 물론, 제도 및 정책 등과 두루 관련하여 이미 매우 복잡해져 있는 여성들의 재생산 현실, 다시 말해 행위적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시기, 인구변동의 특이현상 중 하나는 출생아의 성비(여아 100명 당 남아수) 불균형의 심화였다. 1990년 출생아의 성비는 116.5로 인구 총조사를 시작한 1970년

39) 신유나·최규진, 『낙태죄 제·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 사회·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20권 제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0, 185쪽.

40) 1984년에 합계출산율은 대체수준(2.1명)을 하향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1.5명대까지 떨어졌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1990년의 인구증가율(0.99%)은 1.0%를 하회하면서 선진국의 인구증가수준에 도달하였다. 1990년의 총인구는 4,287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하여 약 470만명(12.4%) 증가로 증가속도가 매우 완만해졌다. 이때는 출생아수의 감소와 1974년까지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모두 생산연령 인구에 진입하게 되어 유소년 인구구성비(25.6%)는 30%를 하회하고, 생산연령인구(69.3%)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70%에 접근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양비는 빠르게 감소하여 1990년의 총부양비는 44.3으로 낮아졌다.

41) 이상의 인구정책에 관한 설명은 다음의 글을 참고. “시기별 인구정책: 1990-2000”, <국가기록원 인구정책>

<http://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policy2000.do> (접속일: 2021.2.14.)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⁴²⁾ 이는 제도적 조건과 기술적 조건이 절합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출산 억제를 위해 원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했다. 여전히 남아 있는 남아선호사상과 결부되어, 1980년대에 이르러 태아 성 감별을 가능하게 만든 초음파 기기의 상용화는 여아 낙태를 일으키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초음파 기기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음은 물론, 젠더 중립적이지도 않다. 주디 와이즈먼(Judy Wajcman)이 상기시키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은 일련의 물리적인 대상 혹은 인공물 그 이상의 것이다. 기술은 특정 종류의 지식, 믿음, 욕망 그리고 실천으로 구성된 문화나 일련의 사회적 관계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⁴³⁾

캐런 바라드에 따르면, 태아는 임신부의 뱃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현상’에 해당한다.⁴⁴⁾ 초음파 검사는 이 현상으로부터 행위적 절단을 수행하는 물질적·담론적 실천이다.⁴⁵⁾ 현상의 외부에서 주체 대 대상의 구

42) 이때 성비 불균형은 경북(130.7), 대구(129.7), 경남(124.7) 등 영남지역에서 더 심했다. 셋째 이상인 출생아의 성비는 193.7까지 뛰었다. 여아가 100명 태어날 때 남아가 두배 가까운 194명이 태어났다는 의미다.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참사...시작은 80년대 초음파 검진>, 『중앙일보』, 2019.11.30.

43) 주디 와이즈먼, 『페미니즘과 기술』, 조주현 역, 당대, 2001.

44) “행위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보면, 태아는 본래적 속성을 가지고 이미 존재하는 관찰 대상이 아니다. 태아는 ‘현상’이며, 몸 생산의 물질적·담론적 장치들의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내부적 상호작용으로부터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현상이다. ‘현상’인 태아는 그로부터 현상이 구성되는 장치들이나 다른 현상들을 포함한다.” 조주현, 『과학적 실천 이론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접점: 캐런 바라드의 경우』, 『한국여성철학』 제25권, 한국여성철학회, 2016, 90쪽.

45) “초음파 기술은 이미 실재하는 태아를 단순히 관찰해 그 존재를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태아를 어머니의 몸 안에서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생명체로 만드는 실천이다. 지금까지 그 실천은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볼 수 있게 하고 태아를 사회나 여성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매우 특정한 장치로 작동해 왔다. 따라서 행위성은 태아를 개별적 존재로 실재하게 만드는 기술적 실천 그 자체에 있으며 그 실천의 효과인 태아에게 있지 않다. 행위성은 어떤 존재가 가지고 태어나는 속성도 아니고 외부

분을 본질화하는 데카르트적 시도가 아니라, 시각적 장치를 통해 현상 내부에서 일어나는 국소적 작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⁴⁶⁾ 현상적으로 분리불가능했던 태아와 산모는 초음파 기술과 함께 비로소 시각적으로 경계를 가지며 분절된다. 시각적 경계를 갖추게 됨은 산모와 개체가 각각의 인지범위로 재규정됨을 의미한다.⁴⁷⁾ 그렇다면 테크노-신체(techno-body)의 출현은 낙태라는 수술의 형식에 앞서 초음파 검사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물질적-담론적 실천은 1990년대 한국이라는 맥락에 기입되는 순간, 가치중립적 테크놀로지가 아닌 젠더편향적 폭력으로 전화한다. <M>에도 이러한 젠더편향적 폭력의 흔적이 극적 설정으로서 남겨져 있다. <M>의 주인공 마리는 여아 선별 낙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M>은 ‘여아 선별’이라는 젠더사이드(gendercide)적 현실을 철저히 후경화한 채 낙태를 젠더중립적 문제로 제시하는 데 치중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낙태라는 ‘범죄’에 대한 ‘단죄’의 목소리는 여성의 몸을 빌린 남성(Man) 인격체의 목소리로 드러난다. 그 인격체의 이름이 바로 대문자 “M”이다.

의 누군가가 특정 존재에게 부여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다.” 임소연, 『페미니스트 과학자는 낙태를 어떻게 보는가』, 김환석 외,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전 지구적 공존을 위한 사유의 대전환』, 이성과감성, 2020, 131-132쪽.

46) 임소연, 『페미니스트 과학자는 낙태를 어떻게 보는가』, 김환석 외,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전 지구적 공존을 위한 사유의 대전환』, 이성과감성, 2020, 132쪽 참고.

47) 바라드와 유사한 논지에서 발사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복강경 검사로 인해 ‘태아의 몸’은 여성 몸과의 자연적인 결합으로부터 은유적으로(그리고 때로는 말 그대로) 분리되었으며, 현재는 새로운, 그리고 중요한 산과(産科)환자로 선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앤 마리 발사모, 『젠더화된 몸의 기술-사이보그 여성 읽기』, 김경례 역, 아르케, 2012, 27쪽.

3. ‘미스터리(Mystery)’라는 담론: 괴담과 전설에 나타난 ‘되기’와 ‘변신’의 모순

〈M〉은 여성의 몸을 빌린 남성 인격체의 목소리를 독특한 기계음 처리와 함께 의도적으로 뚜렷하게 들려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의 대중과 최근의 학문장에서는 그 발화의 내용과 저간을 주의 깊게 살피기보다는, 그 발화의 기괴함과 함께 공포라는 장르 미학에 대한 주목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⁴⁸⁾ ‘M’이라는 작품의 제목이 ‘메디컬(Medical)’, ‘미스터리(Mystery)’, ‘맨(Man)’의 첫 글자라고 제작진이 밝혔듯이, 〈M〉은 ‘미스터리’라는 장르 또는 ‘공포’라고 언표되는 미학체계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공포는 다양한 층위를 지니기 마련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로 ‘만인의 연인’이었던 여성이 ‘괴물’이 되어 돌아왔을 때의 반응이라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M〉의 주인공 ‘마리’를 연기한 배우 심은하는 〈종합병원〉과 〈M〉에 앞서, 1994년을 열어젖힌 드라마 〈마지막 승부〉⁴⁹⁾에서 연애 감정으로 치환된 팬덤의 정동을 연기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마지막 승부〉에서 심은하가 연기한 ‘다슬이’의 정동 이미지는 남성 판타지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사실상 이를 염두에 둔 캐스팅과 함께 그 수행성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⁵⁰⁾

48) 대표적인 연구로 문선영, 『TV드라마의 과학적 상상력』 『M』, 『RNA』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2집(23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문선영은 이러한 공포에 주목하면서 〈M〉을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로 명명한다. 문선영은 〈M〉이 발휘하는 공포가 테크노필리아와 테크노포비아의 낙차 사이, ‘과학에 대한 이중심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49) 손영목 극본, 장두익 연출, 〈마지막 승부〉, MBC, 1994.1.3.~1994.2.22. (총16부작)

50) 이는 또 다른 배우 신은경과의 대비를 통해 두드러졌다. 신은경이 연기하는 ‘김수진’은 팬덤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매니저의 위치에서 남자 선수들과 보다 직접적으로 부

‘다슬이’의 정동 이미지는 〈M〉의 ‘마리’라는 캐릭터에 덧씌워진다. 하지만 〈M〉은 마리의 또 다른 이름 ‘주리’를 앞세워 그 이미지를 전복한다. 만인의 연인으로서의 마리와 마찬가지로, 팜므파탈(femme fatale)로서의 주리 역시 전형적이며, 그런 점에서 〈M〉이 발휘하는 공포는 주리의 행위능력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도, 마리와 주리를 오가는 비통일적 주체에 대한 반응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통일적 주체는, 결정적으로, 분노하는 남성 인격체 ‘M’의 존재로 인해 성립된다. 〈M〉은 교차적 인격으로서의 ‘그녀’를, 사실상 M의 지배를 받는 여성의 몸을 끝내 마리로 보는 휴머니즘적 남성 연인의 시선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 마리라는 물질을 M 그 자체로 보는 생명정치적 치안의 논리를 통해 비극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마리를 살려야 하는 이유는 ‘그녀’가 인간이기 때문이며, M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마리의 몸에 유착되었음에도 ‘그것’이 비인간이기 때문이다. 뒤엎힘의 존재를 개체로 분리해야 하는 이러한 딜레마 앞에서 〈M〉은 ‘바이오 하이브리드’에게 정당한 존재론적 위치를 부여하기를 끝내 거부하며, 사살(射殺)과 함께 비극적 추락의 결말을 마련한다.

마리와 M이 교차하는 비통일적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비인간, 즉 ‘괴물’이다.⁵¹⁾ “틀뢰즈의 혼종 유목적 자아들, 페미니즘이 운영하는 여성들의 다중 여성 되기, 이리가레의 하나이지 않은 여성,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식수의 새로운 메두사는 종종 구식의 사회적 상상계에 괴물, 혼종, 무서운 일탈자로 그려진다”⁵²⁾는 로지 브라이도티의 분석은 〈M〉뿐만 아

대끼고 상호작용한다. 배우 신은경에게 ‘중성적’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따라다녔음을 감안한다면, 〈마지막 승부〉에서의 여성 등장인물들의 배치가 무엇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굳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51) “괴물성의 본질적인 요소는 혼종성의 요소, 즉 범주적 구분이나 구성적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종들 사이, 즉 인간, 동물, 유기적 타자, 비유기적 타자, 기술 사이의 구별이다.” 로지 브라이도티, 『변산: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김은주 역, 꿈꾼문고, 2020, 404쪽.

나라, 1990년대의 담론 환경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M〉에 등장한 비인간 ‘괴물’은 한국 드라마라는 장르의 역사를 전제했을 때 돌출적으로 보이지만, 1990년대가 도시 괴담과 ‘로컬 호러’를 넘나드는 다양한 층위의 ‘괴물 이야기’의 공포가 드리워진 시대였는 사실을 통해 재고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1990년대는 ‘X세대’라는 표상과 함께 탈이데올로기적 이데올로기로서의 ‘개인주의’를 통해 빈번하게 논의되어왔으며, 1990년대적 공포 또한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설명된 바 있다.⁵³⁾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강조함으로써 소비 주체화시키려고 했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다름 아니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

52) 로지 브라이도터,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김은주 역, 꿈꾼문고, 2020, 493쪽.

53) 송아름은 “1990년대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대중문화의 팽창만큼이나 개인을 위협하는 일들 역시 산재해 있었고, 이것은 사건과 사고의 보도, 범인과 귀신을 등장시킨 재연프로그램들을 통해 일상으로 들어왔다. 이처럼 안방에서 감지된 불안은 개인의 지각 경험에 기초한 인지방식을 통해 수용자들의 감각 속에 자리 잡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송아름, 『1990년대의 불안과 〈여고괴담〉의 공포』, 『한국극예술연구』 제34집, 한국극예술학회, 2011 참고. 그러나 불안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개체적인 것, 정동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지 브라이도터는 ‘불안’과 ‘공포’에 대한 브라이언 마수미(Brian Massumi)의 분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인 바 있다. “마수미(1992)는 선진 자본주의의 정치 경제 분석에서 불안의 관리와 공포의 편재성을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그는 들뢰즈와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의 말을 인용, 이를 ‘사고 형식(accident-form)’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세계의 무질서에서 동시대 주체의 위치를 규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마수미는 이데올로기의 쇠퇴를 배경으로 공포와 불안의 논리를 요약하는데, 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자본주의)가 다른 이데올로기(공산주의)에 대한 타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데올로기의 패배 자체를 의미한다. (중략) 적은 더 이상 바깥에 있지 않고, 지금 내부에 있으며, 우리가 냉전이라고 부르던 것이 국내 전선으로 이동했다. 즉 테러리즘은 현대의 지배 방식이다. 테러리즘은 무작위적인 폭력에 의해 작동한다.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총탄은 문자 그대로 어디서든, 언제라도 그리고 아무나 공격할 수 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사격, 공포의 정치 경제를 정의하는, 재앙으로서의 사고다.” 로지 브라이도터,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김은주 역, 꿈꾼문고, 2020, 354-355쪽.

을 비롯하여 진영을 망라한 다양한 논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손희정은 '87년 체제'의 실패와 함께 주어진 '탈사회주의적' 조건 및 이를 통해 전개된 역사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불안과 위기에 직면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자기보존 투쟁, 즉 인정투쟁의 반동적 전유의 결과로서 '혐오하는 스nob(snob)'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⁵⁴⁾ 여기서의 혐오란, 개인이 주체로 거듭나고 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요청되는 근본적인 정동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경계와 위생, 도덕을 지키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정동이다.⁵⁵⁾ 역사적·사회적 관계로부터 탈각된 '개인'을 '주체'로 호명함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에토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인주의의 맥락은 개인의 표지로써 경계를 가진 '신체'를, 존재론적 단위로서 신체와 등치된 '개체'를 취급하게 함으로써, 성형과 낙태가 '개인'의 결정권에 따른 자유로운, 하지만 어디까지나 무분별한 신체 변형이라는 인식을 야기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프레임이 유독 여성을 타자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왔다는 사실은 공작·남성적 영역에 야기된 불안이 신체를 구성하는 장치들에 대한 상상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상상은 '여성-개인'을 포섭하여 '성괴'로 변신시키고, 낙태의 '남용'을 부추기는 의료기술과 관련되어 있으며, 허버트 마셜 매클루언(Herbert Marshall McLuhan)이 산업사

54) 손희정이 참고하고 있는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의 설명에 따르면, 탈사회주의적 조건은 무엇보다 대안적 질서에 대한 비전의 부재와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좌파 운동의 에너지 및 상상력 고갈, 그리고 그런 '조건들에 대한 조건'으로서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매트릭스의 형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Nancy Fraser, *Justice Interruptu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Postsocialist" Condition*, New York: Routledge, 1997, pp.1-7; 손희정, 『혐오의 시대-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 통권 제32호, 도서출판 여이연, 2015, 20쪽 각주 8번 재인용.)

55) 손희정, 『혐오의 시대-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 통권 제32호, 도서출판 여이연, 2015, 30쪽.

회의 신화라고 설명한 ‘기계 숭배’가 여성의 몸에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⁵⁶⁾ 그러나 성형과 낙태 등의 기술만이 몸을 둘러싼 젠더화된 상상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매개로 이루어진 젠더화된 상상은 다른 아닌 ‘괴물 이야기’와 함께 테크노-신체에 대한 사회적 긴장과 정동을 증충결정했던 것이다.

‘개인주의’의 1990년대는 ‘괴담’의 시대이기도 했다. 1990년대에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적으로 회자되었던 괴담의 주인공은 ‘홍콩할매귀신’과 ‘빨간 마스크’이다. “홍콩으로 고양이를 좋아하는 할머니가 효도관광으로 몰래 가방에 고양이를 넣은 채 대한항공을 타고 홍콩에 가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했다. 그러나 살아남은 고양이가 자신의 영혼을 할머니에게 주었더니 되살아나 반인반묘(半人半猫)의 귀신이 되어, 처음에는 이성을 잃고 홍콩에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다니다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 아이를 괴롭혔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잡아가지 않는다.”⁵⁷⁾ 이상의 줄거리를 갖춘 ‘홍콩할매귀신’ 괴담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유행했다. 여기에 이어 역시 1990년대 초에 유행한 ‘빨간 마스크’ 괴담은 붉은색 코트에 빨간 마스크

56) 기계 숭배란, 대중이 표준화, 획일화, 능률과 같은 기계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추종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허버트 마셜 매클루언은 이러한 상황이 테크놀로지와 상업주의의 결합, 즉 광고와 오락 산업의 메시지가 은밀하게 기계 숭배를 전파함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허버트 마셜 매클루언, 『기계신부: 산업사회 인간의 민속 설화』, 박정순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참고.

57) 노성환, 『한국에 상륙한 일본 요괴』, 『일본의 민속생활』, 민속원, 2009, 342쪽. 이들 도시괴담에 관한 연구로는 김종대, 『도시에서 유행한 빨간마스크의 변이와 속성에 대한 시론』, 『한국민속학』 제41집, 한국민속학회, 2005; 노성환, 『바다를 건넌 일본의 요괴-빨간 마스크의 도시괴담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제36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07; 『홍콩할매귀신과 일본의 요괴』, 『일어일문학』 제87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20 등을 참고.

크를 쓴 여인이 아이들에게 “나 예뻐?”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쁘다”고 대답하면 “나랑 똑같이 만들어줄게”라며 낫 또는 가위로 입을 귀까지 찢고, “못생겼다”고 하면 화가 나서 역시 입을 찢는다는 이야기다. 이 괴담은 빨간 마스크를 만났을 때의 대응법—‘포마드’를 세 번 외치거나, 모호한 답변으로 도망갈 시간을 번다는 등—과 함께 널리 전파되었다.

두 가지 괴담은 공통적 ‘화소(話素)’로서 ‘마스크’를 포함하고 있다. 마스크는 찢어진 입을 가리고, 아이임을 숨긴다. 찢어진 입과 아이는 취약한 신체의 형상이며, 마스크는 이러한 취약성을 뒤덮은 또 하나의 취약한 물질로서, 신체적 물질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을 촉발시킨다. 마스크를 통해 환기되는 괴담의 정동이 다름 아닌 신체를 향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홍콩할매귀신’도, ‘빨간 마스크’도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들이 이질적 존재들의 회집을 통해 그 신체적 표지를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주목을 요한다. 비행 사고를 통해 환기되는 지구화시대의 ‘기술’과 ‘고양이’로 표상되는 음험한 ‘동물’, 그리고 ‘여성’의 회집(asmblage) 또는 체내화(incorporation)에 따른 ‘변형’. 찢어진 입과 미(美)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통해 연상되는 ‘성형’. 이는 지배적인 사회 질서의 인식론적 경계들을 넘어서고, 더 나아가 그 질서를 의문시하는 몸의 유물론적 ‘되기(becoming)’에 다름 아니다. 1990년대의 괴담은 ‘되기’의 카르토그래피를 그리는 데 동원되는 다양한 기호적 물질 또는 질료를 예증한다. 이처럼 괴담은 다분히 SF적이며, 그것은 허황된 공상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인 측면을 갖추고 있다.⁵⁸⁾ 그런 점에서 괴담은 역사적 근거 또는 물질적 조건과 관계적으로 존재하는 일종

58) 복도훈, 『SF는 공상하지 않는다』, 은행나무, 2019. 복도훈은 SF라는 용어에 들러붙은 ‘근거 없고 허황되고 공허하다’는 이미지를 벗겨내고 공상의 과학적이고 역사적 근거를 적시하는 한편, 한국 SF를 유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격문학에서 시도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논거한다.

의 실뜨기(String Figures)라고 할 수 있다.⁵⁹⁾

괴이한 물질화로서의 괴담은 담론적 실천이 세계의 계속되는 물질적 (재)배치임을 시사한다. 담론적 실천은 종종 언어적 표현과 혼동되며, 의미화는 자주 개별적인 단어들이나 그룹들의 속성으로 간주되곤 하지만, 캐런 바라드는 담론이 언어 또는 의미와 동의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바라드가 참조하는 푸코에 따르면, 담론적 실천들은 말하기, 쓰기, 사고하기, 계산하기, 측정하기, 걸러내기 및 집중하기와 같은 규율적 지식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기도 하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물질적인 조건들로서, 담론적 주체와 객체를 함께 생산한다. 즉 담론적 실천들은 세계에 관한 계속되는 행위적 내부작용들이며, 이를 통해 국지적 결정이 생산된 현상 안에서 가동되는 것이다. 요컨대, 물질적인 것과 담론적인 것은 내부작용의 역동성 안에서 상호적으로 착근된다.⁶⁰⁾ 그런 점에서 담론적 실천으로서의 괴담을 구성하는 화소는 신체적 물질로 수렴되는 행위주체들의 목록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친근한 반려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괴이한 물질, 즉 ‘괴물’의 형상에 토대를 둔 괴담은 여성의 신체성 자체를 일종의 장애로, 다시 말해 ‘비정상’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전제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되기’의 창발적이고 생성적인 역능을 고스란히 부정성으로 전도시키는 수행성을 발휘한다. ‘되기’의 과정을 거친 여성의 신체는 그로테스크한 외관과 함께 혐오의 대상으로 위치지어진다. 이 혐오는 ‘체현된(embodied) 위협’,

59) 해어웨이는 SF를 과학 소설(Science Fiction)이라는 의미에 고정시키지 않고 다양한 은유로 재전유한다. SF는, 과학소설(science fiction), 사변적 페미니즘(speculative feminism), 과학적 사실(science fact), 그리고 또한 실뜨기(string figures)를 위한 기호이다. Donna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Duke University Press, 2016, p.10.

60) 이상, 물질적인 것과 담론적인 것의 관계에 관한 설명은 다음의 글을 참조. Karen Barad,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Signs*, Vol.28 No.3,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pp.801-831.

즉 ‘몸으로 경험하는 가상적인 위협’을 알리바이로 삼는다.⁶¹⁾ 괴물화된 여성은 신체적 위해에 대한 가상적 공포와 결부됨으로써, 강간을 비롯한 각종 젠더 폭력으로 인한 ‘남성 공포’로부터 탈맥락화하여,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여성 공포’의 형상으로 자리매김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남성 통치의 대상으로 재맥락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괴담의 기본 설정으로서의 ‘변신’은 ‘되기’의 잠재적 가능성이 당대의 정동 환경과 조우하면서 현실적 위협과 무관한 투사적 혐오를 통해 회절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텔레비전 드라마 〈M〉이 강간당한 소녀의 변신과 변신한 소녀의 키스를 통해 괴질에 걸린 남성을 앞세워 ‘공포’라 일컫어 지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테크노-신체의 취약성을 전경화하는 이 텍스트가, 괴담의 서사와 그 유통범위를 동시에 구축하는 혐오의 정동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테크노-신체 또는 탈자연화된 몸을 향한 혐오의 정동은 자연적인 몸의 사회적 상상계로서, 당대가 아닌 반기술적 전근대를 소환하며, ‘전설’의 재발견을 이끈다. 도시 괴담의 짝패로서 ‘로컬 호러’에 해당하는 1990년대의 전설은 당대의 텔레비전을 통해 주기적으로 소비되면서 행위적 현실을 생산하는 동시에 유지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바로 〈전설의 고향〉을 통해서다. 〈전설의 고향〉은 텔레비전에 ‘납량 특집’이라는 형식이 등장한 이후, 공포물로서 여러 차례 ‘리부트’되었다.⁶²⁾ 그런 점에서 ‘납량 특집’이라는 형식은 〈전설의 고향〉에 의해 비로소 정착되었다

61) 하대청은 과학과 괴담, 지식과 감정의 익숙한 이분법이 아니라 ‘체현된 위협’의 개념적 틀을 통해 2008년 광우병 위험 논쟁을 바라보며 광우병 위험을 ‘담론적-물질적-감정적 결합체’로 재정의해보인 바 있다. 하대청, 『위험, ‘괴담’, 감정』, 『2016년 한국과학기술학회 후기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과학기술학회, 2016.12, 61-69쪽.

62) 〈전설의 고향〉은 1977년 10월 18일부터 1989년 10월 3일까지 총578화로 장기간 방영되었다. 1989년 이후 한동안 방영이 중단되었던 〈전설의 고향〉은 1996년 여름 한정 공포물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 1999년까지 4년간 매년 여름에 방영되었다.

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전설의 고향〉이 애초부터 ‘납량 특집’과 공포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⁶³⁾ 1977년에 처음으로 전파를 탄 〈전설의 고향〉의 당초 기획의도는 각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미지의 전설을 발굴하여 소개한다는 것이었다. 그 전설은 응당 미담을 포함하며, 종종 해학적이기도 했다.

무려 578화에 이르는 전설을 소개한 텔레비전은 전설의 전자적 아카이브로서 공론장에서 추방된 구술적 정보를 물리적으로 현존하게끔 만든다. 공포물로서 ‘리부트’되기 이전, 1980년대 〈전설의 고향〉의 각 에피소드는 해당 전설뿐만 아니라, 녹음과 서사적 방백(내레이션)을 동반하는 기록 필름을 아카이빙하고 있었다.⁶⁴⁾ 아카이브는 물질적인 동시에 담론적이다. 또한 해체적이기보다 제도적이고, 위반적이기보다 입법적이다.⁶⁵⁾ 하지만 “전설의 고향”이라는 이름의 아카이브는 가부장제의 타자들을 다종다양하게 열거하면서 바로 그 제도를 해체하고 위반한다는 점에서 반(反)아카이브적(anarchival) 충동을 드러내고 있다.⁶⁶⁾ 〈전설의

63) 이는 문선영에 의해 충분히 규명된 사실이다. 문선영은 〈전설의 고향〉과 더불어 라디오 방송극 〈전설따라 삼천리〉를 함께 다루며 이 두 드라마가 처음부터 ‘전설’과 ‘공포’가 결합된 것은 아니었으나, 대중들의 기대와 호응에 따라 각 시대에 맞는 공포물로 탄생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선영, 「전설에서 공포로, 한국적 공포물 드라마의 탄생」, 『우리문화연구』 제45집, 우리문화회, 2015.

64) 물론 이렇게 구축된 아카이브는 어디까지나 전자적으로, 그 신체적 물질성을 쉽게 훼손당한다. 1977년부터 1987년까지의 에피소드 가운데는 2020년 현재, 5편이 남아 있을 뿐이다. 유튜브(YOUTUBE) KBS 아카이브 공식채널 ‘옛날티비’에 1978년에 방송된 〈느티고개〉를 비롯해, 1979년의 〈정선 아리랑〉과 〈이어도〉, 1980년의 〈쌍가마〉, 1981년의 〈저승화〉가 각각 업로드돼 있다.

65) ‘아카이브’의 수행성에 관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 Hal Foster, “An Archival Impulse”, *October*, Vol.110, MIT Press, 2004, pp.3-22. 이 글에 대한 번역은 이주연과 조주연에 의해 작성되어 온라인 번역 플랫폼 ‘호랑이의 도약’에 공개되었다. <http://tigersprung.org/?p=3208> (접속일: 2021.2.14.)

66) 반아카이브(anarchive)란 아카이브에 대한 기억의 권위적-작가주의적인(authoritative) 선별과 질서를 초과하는 기억, 느낌, 정동 등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이고 관계적인

고향)이 각종 에피소드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시킨 여성 괴물로서의 ‘귀신’이 바로 그 타자의 대표적 형상일 것이다.

여성 귀신, 더 나아가 각종 괴물은 또한 물질적 역사성의 형상으로서 그 형상을 등장시킨 시대적 조건과 관계한다. 1980년대의 〈전설의 고향〉이 장기간 연속 방영되면서 ‘고향의 전설’을 아카이빙함으로써 사회적 타자를 생산한 미풍양속의 목록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면, 1990년대의 〈전설의 고향〉은 ‘납량 특집’이라는 임시적 형태로 방영되는 가운데, 괴이한 몸을 큐레이팅하며 신체가 고유한 경계와 속성을 가진 객체가 아님을 드러내 보이는 데 치중한다. 1980년대의 〈전설의 고향〉은 텔레비전 전파가 도달하는 전국의 ‘고향’, 즉 로컬로부터 서사적 기이와 경이의 동력을 확보한다. 이와는 달리, 1990년대의 〈전설의 고향〉은 종종 괴이한 신체로부터 과장된 혐오로서의 공포를 이끌어낸다. 시체를 훼손한 여성과 (“내 다리 내놔”라는 대사와 함께) 이 여자를 집요하게 쫓는 훼손된 ‘산 송장의 스펙터클을 재현하는 〈덕대골〉, 죽은 고양이의 원귀에 빙의된 소년이 바로 그 고양이의 얼굴을 한 채 등장하는 〈묘곡성(猫哭聲)〉 등의 에피소드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⁶⁷⁾ 여우와 뱀으로 변신하는 여성을 앞세운 〈구미호(九尾狐)〉 또는 〈호녀(狐女)〉, 그리고 〈사녀(蛇女)〉 등의 에피소드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 에피소드가 다루는 몸 역시 고정되거나 안정된 실재는 아니다. 이러한 몸의 형상은 성형, 낙태, 괴

조건들은 그 상황에서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상적 잠재력을 재구성하며 ‘반아카이브적 스크립트(anarchival scripts)’를 생성한다. ‘반아카이브’라는 개념의 용례는 다음의 글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Søren Rasmussen, “Anarchival Scripts”, *Capacious: Journal for Emerging Affect Inquiry*, Vol.2 Nos.1-2, OPEN HUMANITIES PRESS, 2020, pp.186-205.

67) ‘묘곡성’ 에피소드에 나타나는 고양이의 빙의가 홍콩할매귀신 괴담이 전하는 회집 또는 체내화와 상동성을 지닌다는 사실은 전설이 당대의 괴담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담의 테크노-신체와 대비를 이루는 듯하지만, 비단 기술이 아니더라도 고양이, 여우, 뱀 등 반려종 너머의 무언가와 끊임없이 접촉하고 관계하는 존재로서, 신체의 경계와 속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오히려 테크노-신체와 대등한 관계에 놓인다고 해야 옳다.

이와 같은 물질화를 전제한 변신 서사는 신체는 물론, 삶과 죽음, 육체와 영혼 등 본질적 경계와 속성의 거듭되는 재형성이기도 하다. <전설의 고향>을 통해 대중에게 그 형상이 각인된 여성 귀신은 죽음 너머의 끈질긴 삶, '이승'과의 연결성과 불가분성을 표상한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 죽어서도, 변신해서도 기억하는 몸의 그 끈질김에 대한 기이와 경이(驚異)는 신체에 대한 괴이의 감각으로 대체된다. 여성의 성적 매력 뒤에 은폐된 기괴한 신체를 재현하는 '구미호' 전설이 1990년대의 <전설의 고향>을 대표하는 에피소드로 자리매김되면서 광학적 특수효과를 실험하는 장으로 삼아진 것이 바로 그 예다.⁶⁸⁾

혐오의 정동 환경 내에서 여성의 몸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실체(fleshy and bloody entity)'와 상징적 구축물 사이를 끊임없이 회전하며 공진한다. 1996년, 구미호의 형상을 앞세워 <전설의 고향>이 재개되기 이전에 등장한 <M>은 바로 이러한 정동 환경의 토대 위에서 생산된 행위적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M>은 괴담이라는 현상과 뒤얽혀 '공포'를 넘어선 '혐오'의 정동체계에 가담하며, 또한 이를 과학기술의 도구적 남성성의 이름 'M'으로 확대재생산한다. 바로 이와 같은 지평 위에서 전설은 유구한 가부장제에 대한 상상적 위반의 체계에서 동시대적 혐오의 장치로 정동적 변이를 거치고 있었던 것이다.

68) 1996년 여름과 1997년 여름에 방영된 '납량 특집' <전설의 고향> 제1화에 <호녀(虎女)>와 <구미호(九尾狐)>라는 제목으로 반복적으로 배치된 이 전설은 <전설의 고향>의 시즌이 시작됨을 알리는 오프닝 에피소드였다.

4. ‘맨(Man)’의 정동: 〈M〉이라는 현상 또는 회절의 백래시적 상연

1990년대의 여성혐오는 종종 자연 또는 본질(nature)로서의 몸을 전제로, 의료기술과 접속 또는 접촉하는 인공적 신체에 대한 혐오를 알리바이로 삼는다. 동시대의 괴담과 전설 역시 ‘되기’의 가능성에 개방된 신체를 혐오스럽게 상상케 하며 본질주의적 신체의 ‘정상성’을 강화한다. 이는 성형과 낙태, 괴담과 전설의 내부작용에 따른 회절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절 패턴 속에서 여성은 괴이한 물질, 즉 괴물로 드러난다.

괴물화된 타자로서 여성에 대한 공포가 곧 가부장제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다수자적 주체의 불안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괴물적인 재현은 다수자의 부정적인 혹은 반응적인 불안만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또한 종종 동시에 이전의 소수자들의 새로운 주체성을 표현하고, 따라서 되기의 가능한 패턴들을 추적한다”⁶⁹⁾는 로지 브라이도티의 지적을 염두에 둔다면,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backlash)의 상상력에 출몰한 괴물을 재평가할 새로운 존재론이 필요하다. 그 존재론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위해 카르토그래피의 접근법에 따라 주목해야 할 사실은 〈M〉이라는 텍스트가 역사적·사회적 힘들에 따른 또 하나의 회절 패턴이라는 점이다. 이를 살피기 위해서는 ‘표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도이자 자아에 대한 변형적 설명”으로서의 ‘형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형상이 살아있는 지도라면, 이 지도는 정동적 관계의 산물이다. 정동적 관계는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를 구성한다.⁷⁰⁾ 이것이 〈M〉이라는 텍스트에 출현한 마리라는 형상을

69) 로지 브라이도티,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김은주 역, 꿈꾼문고, 2020, 378쪽.

70) “인간 행위자에게 어팩트는 물질적이면서 관념적인 관계, 간단히 말해 인간을 둘러싼

행위자적·실존적 역량의 증감이라는 존재론적 인식들과 함께 살펴야 할 이유다.

〈M〉은 마리-주리-M으로 이어지는 변신의 서사를 따른다. 마리는 10대 소녀 시절에 집단 강간을 당한다. 그런 점에서 '발레하는 여고생'은 결국 강간당하기 위해 의도되고, 할당된 극적 설정처럼 보인다. 이 설정은 '여성성'을 '상처'와 연관시켜 여성의 몸을 수동적인 것으로 코드화한다. 그런데 이때, 마리의 불가사의한 괴력—괴한 셋을 해치운 힘—이 과학자들에게 발견된다. 강간 피해자가 아니라 인식불가능한 대상, 환자를 넘어 질병 그 자체로 규정된 마리는 곧바로 '남성' 의료계의 병리학적 담론에 포섭된다. 마리는 미국으로 보내지고, 프롬 박사의 손에 의해 길러진다. 이는 통상적인 돌봄이 아니라 의료적 대상화였다. 마리는 이렇게 실험실의 테크놀로지에 의해 구성된 신체, '주리'로 거듭난다.

마리는 의사 주리가 되어 귀환하지만 죽어서도, 변신해서도 기억하는 몸으로 존재했던 여성 귀신과는 달리, 가족, 친구, 연인 등 이전의 사회적 관계를 모두 망각한 채다. 이는 생물학적 죽음과는 다른 사회적 죽음으로서, 삶과 죽음의 이분법으로 환원되지 않는 관계적 자율성의 박탈을 의미한다. 마리의 기억과 철저히 단절된 주리는 연인과의 첫 키스조차 유보했던 이전과는 다르게 리비도적 힘으로서의 성적 행위주체성을 갖춘 여성으로 형상화된다. 주리의 형상은 성적 대상화와 의료적 대상화로 인해 도출된 것이다. 키스를 통해 괴질과 죽음을 전파하는 주리의 몸은 병리학적 시선에 따라 오염 물질로 치부된다. 〈M〉은 물질화를 인지하고 재현하고자 하면서도, 신체적 물질에 대한 동시대적 혐오에 따

환경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행위자 및 개체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행위자적·실존적 역량을 증/감시키는 관계이다." Jan Slaby & Christian von Scheve (eds.), *Affective Societies: Key Concepts*, Routledge, 2019, p.27.

라 물질화를 오염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원으로 취급되는 주리의 입맞춤, 즉 괴질을 유발하는 ‘죽음의 키스’는 테크노포비아로 위장된 타자화 또는 괴물화의 실체가 다름 아닌 초인플레이션화한 여성성에 관한 것임을 노출하는 설정이다. 이는 ‘여성되기’가 아니라 성애화로서, ‘타자되기’ 또는 ‘사물되기’, 즉 인종화 또는 사물화와 겹쳐져 있으며, 일종의 미소지니에 해당한다.⁷¹⁾

그러나 이러한 타자화는 여성성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여성성의 이미지를 통해 수행되는 것이며, 실은 초인플레이션화된 남성성의 전도에 다름 아니다. ‘죽음의 키스’는 주리의 성적 욕망이 아닌 M의 행위주체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마리 또는 주리로 형상화되는 몸이 극심한 분노나 흥분상태에 있을 때 방출되는 파괴 에너지의 정체는 바로 M이다. 그런 점에서 주리가 아니라 M이야말로 오염원의 실체라 할 만하다. M은 낙태 수술로 희생된 태아의 기억분자로서, 남성 인격이며, 복수의 화신이다. M은 자신을 낙태시킨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임신중절수술’ 경험이 있는 여자와 그 원인 제공자인 남자들이 M의 복수 대상이다. ‘인간’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괴물의 복수는 메리 셸리(Mary Shelly)의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으로부터 반복되어온 SF의 익숙한 서사다. 다만, 〈M〉에서의 이 반복은 회절을 통해, 회절과 함께 드러난다.

양자물리학적 의미에서의 회절은 고전물리학에서 이해하는 단순한

71) 미소지니, 즉 여성혐오는 몸이나 육체성에 대한 혐오, 죽음이라는 유한성을 상기시키는 것에 대한 공포와도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여성혐오란 생리학적 여성만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항에 몸, 감정, 정념, 쾌락, 가변성과 사멸성의 요소들을 응축해 넣어 허위이자 믿을 수 없는 것, 동물성, 표피성, 천박함과 미천함, 오염성 등으로 여성과 등치되는 항들을 열등 가치화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관념이자 위계화된 인식 체계, 행동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윤지영, 『현실의 운용원리로서의 여성혐오: 남성공포에서 통감과 분노의 정치학으로』, 『철학연구』 제115집, 철학연구회, 2016, 208쪽.

간섭의 문제가 아니라, 뒤엎힘의 문제다. 회절은 거리를 두고 함께 있는 것, 강제로 분리하지만 행위주체의 가능조건을 개방하고 재활성화하는 것이다. 행위적 실재론에서 회절 패턴은 경계의 비결정적인 본질, 불확실한 본성, 경계의 반복적인 재형성, 차이들의 뒤엎힘을 의미한다. <M>에서 확인되는 회절의 장치로는 의료 기술과 이를 통해 분자화된 몸, 그리고 이 몸을 받아들인 또 다른 몸을 동시에 꿈꿀 수 있다. 낙태를 통해 분자화된 M은 수술 도구를 통해 마리의 신체 내부로 유입된다. 다공성(porosity)의 신체가 겪은 이 수술은 다름 아닌 여아 선별 낙태다. 셋째 딸이었던 마리는 '동양적 풍속'이라 일컬어지는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M과 마찬가지로 낙태될 뻔했으나, M의 저항으로 수술을 피해 6개월 뒤에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 출산 과정에서 산모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고 끝내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마리는 산모를 죽인 아이라는 낙인과 함께 가족들의 혐오 속에서 길러진다. 물론 이 혐오는 마리-주라-M으로 시시각각 변신하는 비통일적 주체에 대한 공포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어 텍스트상에 아무런 가시적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마리-주라-M으로 이어지는 변신은 기억분자 M의 비체-객체-주체로의 변신과 맞물려 있다. M의 변신 과정은 이러한 변형이 일어나기 위한 육체의 장을 제공하는 체현된 여성 주체성과 관련을 맺는다. 이는 행위주체성이 인간, 비인간, 사이보그와 같은 주체적 '존재(being)'에게 부여되는 속성이 아니라, 내부작용성(intra-activity) 안에서 '존재'이기도 하고 '행위(doing)'이기도 하다는 캐런 바라드의 견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⁷²⁾ <M>은 마리의 행위자적-실존적 역량이 감소되고 끝내 소거되는 서사적 전개를 따른다. 한편, 이는 M의 행위자적-실존적 역량이 증

72) Karen Barad,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niversity Press, 2007, p.178.

가하는 서사이기도 하다. 마리는 끝내 자신의 몸에 침투한 비체와 하나 이자 동일자가 된다. 마라-주리-M의 횡단적 정체성은 M은 통합적 정체 성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M〉이 형상화하는 변신이란 물질의 분자화에서 분자의 재물질화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으로서, 이때 물질이란 결코 정주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이미 근원적으로 개방적이다. 몸은 그것을 둘러싼 것들과 연결되고 접속되면서 ‘되기’의 과정을 거친다. 물질화로서의 ‘되기’는 진행적 또는 간행적(intra-active)인 것이다. 그런데 〈M〉은 여성의 몸으로 오로지 남성이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는 공간적 표면으로 위치시킨다. 이 변신은 상호연결성을 발생시키고 유지하는 능력과 친밀감으로서의 ‘되기’와 구별된다. 마리와 M은 공생적이거나 의존적이지 않다. 마리는 능동적 행위자가 아니라, M의 통제에 따르는 수동적 도구에 해당한다. 마리로 표상되는 여성의 몸은 도구적 모성성의 몸으로서, 선별 낙태의 대상이었던 ‘여성’이 아닌 ‘남성’ 태아를 위한 잠재적인 그릇으로서, 생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가치 평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M〉은 여성 신체의 무력함을 바탕으로 한 침탈의 시나리오로서 강간의 알레고리에 따라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은 피해자에 다름 아닌 여성의 몸을 통해 ‘피해자’임을 호소하는 남성의 목소리만을 거둬 들려줄 뿐이다. 기계음으로 처리되어 테크노-신체를 환기하는 M의 음성은 여성의 몸을 ‘자궁’으로 환유하며, ‘출산기계’로 환원하는 가부장제의 목소리에 다름 아니다.⁷³⁾

73) 이와 관련하여 앤 마리 발사모는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에 기술적으로 몸이 변형되고 재구성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성의 몸들은 여전히 ‘자연적인 것’, ‘성적인 것’, ‘재생산적인 것’으로 문화적으로 코드화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앤 마리 발사모, 『젠더화된 몸의 기술 사이보그 여성 읽기』, 김경례 역, 아르케, 2012, 27-28쪽 참고. 발사모의 이러한 설명은 〈M〉이 마리 또는 주리의 몸을 코드화하는 방식과 충분히 밀접하다고

여성의 생식력을 착취하는 통치의 논리는 이렇게 뚜렷한 목소리를 얻는다. 하지만 1990년대 문화적 규범의 동요로서 낙태만이 이야기될 뿐, 오래된 만큼 뿌리 깊은 문화화된 폭력으로서의 강간은 결코 이야기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존재의 또 다른 국소적 표현으로서 마리의 녹안(綠眼)은 오히려 강탈당한 신체를 응시로서 소비하는 시청자들 앞에 선 희생자 여성의 구조 신호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다수자적 주체의 불안과 공포의 정동과 괴물성의 신호로 의심 없이 소비되었을 뿐이다.

바바라 크리드(Barbara Creed)의 전제에 따라보자면, 이 신호와 함께 남성 시청자는 여성의 몸 안에 자리한 '남성 괴물'과 동일시하도록 유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성 시청자가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여성 괴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쾌락을 얻는다면, 그것은 이들이 가부장제가 할당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⁷⁴⁾ 괴물성이 각인된 마리의 몸은 남성 인격과 여성 신체가 혼합된 혼종체의 장소로서, 내부 작용 대신 상호작용하는 신체로 그려진다. 하지만 마리와 M의 상호작용은 비대칭적이고 비호혜적이며, 끝내 통일적·단수적 주체로 환원된다. 이 변신은, 공생적 변신으로서의 되기가 아니다. 존재는 항상 과정 중에 있다. 그것이 바로 되기다. 공생적이 아니라, 통일적·단수적 주체로 환원되는 이 변신은 M이라는 어디까지나 대문자 남성-되기로서, 포텐티아를 드러내는 되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마리는 남성-되기의 실천으로서 오이디푸스적 서사의 대리자(agent)에 해당한다. 비체로서의 M은 마리라는 여성 신체를 지배하고 소유하면서 마침내 오이디푸스적 주체의 살부(殺父) 충동을 체현한다. “이리가레

할 수 있을 것이다.

74) 바바라 크리드, 『여성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 손희정 역, 도서출판 여이연, 2020, 290-291쪽 참고.

에게 자궁 내 공간은 오히려 반오이디푸스적 공간이다. 텃줄은 반오이디푸스적 공간에 대한 욕망을 재현한다”⁷⁵⁾는 로지 브라이도티의 견해와는 달리, 〈M〉은 반오이디푸스적 자궁을 죽음의 공간으로 드러내며, 남성적 물질성으로서의 기억분자 M과 이에 따른 오이디푸스적 서사의 토대를 마련해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자궁은 성폭력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이와는 반대로 인간과 등치된 남성(Man)의 존재론적 취약성을 상상하도록 이끄는 폭력의 장치로서 활용된다. 자궁을 통해 여성은 ‘강간’이라는 범죄의 대상이 아니라, ‘낙태’라는 범죄의 주체로서 행위주체적 잠재성을 드러낼 뿐이다.

주리와 M이 교차하고, 끝내 M이 지배하는 마리의 몸은 남성중심사회의 정동을 수렴하고 다시 한 번 발산하는 행위주체이자 물질적 장치다. ‘마리’, ‘주리’, ‘M’이라는 다른 이름의 현상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고유성이 아니라, 존재의 경계와 속성이 본질적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다양한 행위능력들과의 내부작용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형성(iterative reconfiguring)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M과 마리(주리)는 분리 불가능하다. M을 죽이는 것은 곧 마리(주리)를 죽이는 것이다. 〈M〉은 그 결말에 이르러, 태아를 떨어뜨리듯이(落胎) M 그 자체인 마리를 총으로 쏘아 떨어뜨려 죽인다. 고통받는 인간(남성)에 대한 책임 또는 윤리적 의무로 의미화된 이 살인은 존재론적 불확정성의 해결을 실행하는 행위적 절단이 아니라, 행위적 절단을 포기한 세계와 존재 사이의 절단이다. 이처럼 〈M〉은 뒤엎힘을 조건으로 삼는 신체적 물질을 폐기 처분함으로써 물질적 실존의 유한성을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방식으로 개체중심주의적인 신체의 경계를 재기입한다. 개체로 분리불가능한 신체는 ‘불치’의 대상이자 ‘사살’의 대상일 뿐, 행위주체일 수 없다는 것이다.

75) 로지 브라이도티, 『변산: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김은주 역, 꿈꾼문고, 2020, 54쪽.

〈M〉은 회절의 창발적이고 생성적인 가능성을 이처럼 백래시의 역행적 힘과 함께 수동성과 부정성으로 전도시켜 드러낸다. 〈M〉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회절 패턴은 텍스트 자체의 고유성을 표명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성형과 낙태, 괴담과 전설 등 혐오를 생산하는 당대의 장치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상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속의 기술은 몸에 접속하는 순간, 몸의 '본질'을 훼손하는 장치로 굴절된다. 물질화하는 몸은 담론적 실천들과 연결되지만, 물질적 현상과 연결된 담론은 물질화를 괴물화로 왜곡한다. 기술과 물질, 물질과 담론은 서로를 매개함에도 불구하고, 혐오의 정동은 이 관계를 기만과 위협의 조건으로 규정하며 분리시키고자 한다. 이와 같은 규율적 환경의 침투에 노출된 몸은 환경을 변화시킬 잠재성을 지니지만, 오히려 그 환경에 의해 변신할 뿐이다. 변신하는 몸을 문제 삼는 〈M〉 또한 마찬가지다. 요컨대, 〈M〉은 회절을 상연하는 혐오의 장치이자, 혐오의 장치에 의한 회절의 상연이다.

5. '인간'의 대안적 정의와 포스트휴먼의 존재론을 위하여

신체적 물질에 해당하는 인간의 몸은 반복적 상연의 과정에 놓인다. 비단 인간 신체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는 반복적 내부작용, 즉 그것의 수행성을 통해 물질이 된다.⁷⁶⁾ 수행성이 주체의 구성뿐만 아니라, 신체적 물질의 생산과도 연결된다면, 주디스 버틀러의 '물질화'에 관한 설명과 '물질화된 재배치'라는 도나 해러웨이의 개념에서와 같이, 이러한 생

76) Karen Barad,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Signs*, Vol.28 No.3,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pp.822-823.

산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다.⁷⁷⁾ 이러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 행위적 실재론에 따르면, 존재는 물질적·담론적 실천을 통해 차이나게 연루되고 절합된다. 이 실천은 행위적 내부작용(agential intra-action)의 반복적 역학 안에서 가능성의 물질적·담론적 장을 재배치한다.

1990년대는 존재의 물질성을 인지하고 존재의 물질화에 관한 인식들을 다양하게 표명하려는 존재론적 전회가 가속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그 인식들은 기술, 담론, 정동 등의 장치들과 함께 몸을 향한다. 물질화를 증명하는 현상이자 형상으로서의 몸은 재현주의에 따라 드러나는 표상이기에 앞서, 기술, 담론, 정동 등과 결부되어 행위적 내부작용을 반복하며 회절을 드러낸다. 반복적 회절 패턴을 그리는 몸은 몸이 자연 그 자체라는 본질주의적 전제가 허구임을 폭로한다. 몸은 과학적 실천과 사회적 배치, 그리고 문화적 권력 등의 힘·관계가 교차하는 장으로서 결코 자연적이지 않다. 좀 더 정확히 말해, 몸을 둘러싸고 또한 몸을 횡단하는 자연부터가 다양한 장치들의 작동과 함께 시시각각 변신하는 살된 존재로서의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언제든 그래왔지만, 특히 1990년대는 몸과 기술의 접촉 또는 접촉이 가속화되고 긴밀해지고 있던 시기다. 그 기술은 몸에 직접적으로 더해져 물질적·존재론적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몸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인식론적 장치로 작동하기도 했다. 예컨대, 기술을 전제로 도출된 의료화된 시선은 바로 그 기술을 체현한 몸을 ‘비정상’으로서 발견해내는데, 이는 종종 여성의 성별적 속성과 결부되었다. 테크노-신체의 인공성을 여성성과 부정성에 등치시키는 백래시의 논리는 젠더화된 상징자본으

77) Karen Barad,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Signs*, Vol.28 No.3,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p.808.

로서 테크놀로지에 힘입은 도구적 남성성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대의 '메디컬' 기술은 남성중심적 정동과 분리불가능하게 뒤얽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M>이 바로 이를 증명한다.

<M>이라는 제목에 함축된 '메디컬', '미스터리', '맨'은 장르적 혼종체의 미학을 구성하는 기호들에 그치지 않는다. '메디컬' 기술, '미스터리'라는 담론, '맨'의 정동은 젠더화된 혐오를 발생시키고 유지하며 강화하는 사회적 장치들이다.⁷⁸⁾ 기술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그리고 문화적인 것의 행위적 뒤얽힘에 의해 마련된 물질/사태(matter)로서의 텍스트 회집체는 기호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장치들의 행위적 내부작용에 의해 작동한다. 주지하다시피, 텍스트(text)는 콘텍스트(context)와 함께(con) 존재한다. 텍스트는 콘텍스트를 반영하는 동시에 구성한다. 다시 말해, 텍스트와 콘텍스트는 뒤얽힌 채, 현상으로서 존재하며 행위적 현실을 생산한다. <M>은 역사적으로 틀 지워지고, 맥락 속에서 정의된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적 가정들을 보편적인 정의(justice)로서 앞세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휴머니즘의 젠더화된 정의(definition)일 뿐이다.

카르토그래피적 접근법에 따라 포착되는 괴담과 전설이라는 현상은 당대의 역사적-관계적 조건들이 휴머니즘적 인간을 쇠락시키고 있음을

78) "장치들은 행위들이 발생하기 전에 자리 잡고 있는 과학적 도구들, 즉 고정 장치들이나 저항과 순응의 변증법을 매개하는 기계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자연세계의 중립적인 탐색도구들도 아니고 몇몇 특정 결과를 결정적으로 부가하는 구조들도 아니다. 보어의 성찰에 관한 나의 더 진전된 연구에서, 장치들은 세계 안의 단순한 정적 배열들이 아니라, 오히려 특수한 예외적인 경계들이 가동되는 역동적인 (재)배치, 특수한 행위적 실천들/내부작용들/수행들이다. 장치들은 어떤 고유한 '바깥' 경계도 가지지 않는다. 이런 '바깥' 경계의 불확정성은 닫힘의 불가능성, 즉 물체적 생산 장치의 반복적인 재배치 과정에 있는 지속적인 내부작용을 드러낸다. 장치들은 제한 없는 실행들이다." Karen Barad,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Signs*, Vol.28 No.3,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p.816.

여실히 보여준다. 성형과 낙태라는 물질적-담론적 실천 또한 휴머니즘적 인간을 쇠락시키기는 마찬가지다. 휴머니즘적 인간이 쇠락한 자리에 등장한 존재, 그것은 포스트휴먼이다. 포스트휴먼은 목적론적 역사의 결말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존재-인식론적(onto-epistemological) 전회를 통해 비로소 포착된 것으로, 정동, 긴장 그리고 관계의 다양성으로부터 출현하여, 근본적으로 이것들에 의해 구성된 유목적 주체라 할 수 있다. 성형과 낙태, 괴담과 전설, 더 나아가 〈M〉은 이러한 유목적 주체로의 '되기'의 가능성을 개방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물질에 대한 인간주의적 이해와 인간에 대한 본질주의적 전제로 인해 물질화에 대한 포스트휴먼적 함축이 결여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M〉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휴머니즘이 포스트휴머니티의 주어진 조건을 배제 또는 삭제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세계에는 인간 예외주의가 허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행위주체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관계적 존재는 상호작용 및 내부작용을 통해 맺어지고 풀어지기를 반복하는 몸을 통해 취약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인간들(humans)과 인간이 아닌 것들(non-humans), 살아있거나 살아있지 않은(living or non-living) 존재들과의 물질적 뒤얽힘은 그 어떤 존재라도 취약하게 만든다. 취약성(vulnerability)은 모든 물질의 근본적 속성으로, 이 속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연결과 의존을 통한 '되기'와 '변신'의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과학적-사회적-문화적 관계의 신체로 변신하는 몸은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을 떠나 존재론적 복잡성을 체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적 수행으로서의 변신이라는 물질화에는 사회적 기만 또는 위협이라는 인식과 함께 '괴물화'라는 낙인이 주어졌고, 괴물화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

다. 그런 점에서 ‘낙태죄’ 폐지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향한 오랜 투쟁의 결실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어떤 시작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낙태는 법리적 문제를 넘어선 윤리적 문제이고, 윤리적 문제는 인식론적-존재론적 문제이며, 존재론적 문제는 물질적 취약성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가운데 다뤄질 수 있다. 취약성의 존재는 그 본질 대신, 사회적 연결성을 주체의 핵심에 놓을 것을 요청하며, 새로운 종류의 에토스와 윤리적 책임을 발생시킨다. 책임성(responsibility)은 응답할 수 있는 능력(response-ability)을 의미한다. 또한 의무성(accountability)은 사유할 수 있는 능력(account-ability)을 의미한다. 코로나 19 감염증 유행이 전면화한 신체적 물질을 둘러싼 혐오가 마치 생존의 문법인 양 일상화된 지금이야말로, 〈M〉이 애써 거부한 인간의 대안적 정의에 대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인간 및 비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적 사유를 재개해야 할 때다. 이 사유는 행위적 실재론이 제기하는 물질적 현상과 담론적 실천 간의 관계성에 대한 응답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정세호 연출, 〈M〉, MBC, 1994.8.1.~1994.8.30. (총 10부작)

2. 논문 및 단행본

권명아, 「젠더·어펙트 연구에서 연결성의 문제: 데이터 제국의 도래와 '인문'의 미래」, 『석당논총』 제77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0, 5-38쪽.

그레이엄 하먼, 『네트워크의 군주-브뤼노 라투르와 객체지향 철학』, 김효진 역, 갈무리, 2019.

_____, 『비유물론』, 김효진 역, 갈무리, 2020.

김동식 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김보명, 「'여성 공간'과 페미니즘-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배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71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 83-118쪽.

김종대, 「도시에서 유행한 빨간마스크의 변이와 속성에 대한 시론」, 『한국민속학』 제41집, 한국민속학회, 2005, 95-121쪽.

김환석 외,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전 지구적 공존을 위한 사유의 대전환』, 이성과 감성, 2020.

노성환, 「바다를 건너 일본의 요괴-빨간 마스크의 도시괴담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제36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07, 353-378쪽.

_____, 『일본의 민속생활』, 민속원, 2009.

_____, 「홍콩할매귀신과 일본의 요괴」, 『일어일문학』 제87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20, 285-306쪽.

레비 R. 브라이언트, 「존재의 지도-기계와 매체의 존재론」, 김효진 역, 갈무리, 2020.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아카넷, 2015.

_____,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김은주 역, 꿈꾼문고, 2020.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정동 이론』,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갈무리, 2015.

문선영, 「전설에서 공포로, 한국적 공포물 드라마의 탄생」, 『우리문학연구』 제45집, 우리문학회, 2015, 229-259쪽.

_____, 「TV드라마의 과학적 상상력-『M』, 『RNA』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

- 평』 제82집(23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317-337쪽.
- 바바라 크리드, 『여성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 손희정 역, 도서출판 여이연, 2020.
- 복도훈, 『SF는 공상하지 않는다』, 은행나무, 2019.
- 손희정, 『혐오의 시대-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 통권 제32호, 도서출판여이연, 2015, 12-42쪽.
- 송아름, 『1990년대의 불안과 〈여고괴담〉의 공포』, 『한국극예술연구』 제34집, 한국극예술학회, 2011, 291-324쪽.
- 쇼히니 초두리 편저, 『페미니즘 영화이론』, 노지승 역, 열피, 2012.
- 신유나·최규진, 『낙태죄 제·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 사회·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20권 제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20, 169-206쪽.
- 앤 마리 발사모, 『젠더화된 몸의 기술사이보그 여성 읽기』, 김경례 역, 아르케, 2012.
- 엘리자베스 그로스, 『몸 페미니즘을 향해: 무한히 변화하는 몸』, 임옥희·채세진 역, 꿈꾼문고, 2019.
- 원용진 외, 『메디컬 드라마의 크로노토프』, 『대중서사연구』 제25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9, 169-216쪽.
- 윤지영, 『현실의 운용원리로서의 여성혐오: 남성공포에서 통감과 분노의 정치학으로』, 『철학연구』 제115집, 철학연구회, 2016, 197-243쪽.
- 이강원, 『젠더와 트랜스섹슈얼리즘: 성전환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인류학에 대한 성전환적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19집 1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3, 5-39쪽.
- 임소연, 『성괴를 위한 변명: 사이보그 프로젝트로서의 성형수술』,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과학기술학회, 2017.5, 88-98쪽.
- _____, 『과학기술과 여성 연구하기: 신유물론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의 안-사이에 서 “몸과 함께”』, 『과학기술학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과학기술학회, 2019, 169-202쪽.
- 제인 베넷, 『생동하는 물질: 사물에 대한 정치생태학』, 문성재 역, 현실문화, 2020.
- 조주현, 『난자: 생명기술의 시선과 여성 몸 체험의 정치성』, 『한국여성학』 제22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06, 5-40쪽.
- _____, 『과학적 실천이론과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의 접점: 캐런 바라드의 경우』, 『한국여성철학』 제25권, 한국여성철학회, 2016, 65-104쪽.
- 주디 와이즈먼, 『페미니즘과 기술』, 조주현 역, 당대, 2001.
- 캐런 바라드, 『행위적 실재론-과학실천 이해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 박미선 역,

- 『문화과학』 제57호, 문화과학사, 2009, 61-82쪽.
- 하대칭, 『위험, '괴담', 감정』, 『2016년 한국과학기술학회 후기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과학기술학회, 2016.12, 61-69쪽.
- 히버트 마셜 매클루언, 『기계신부: 산업사회 인간의 민속설화』, 박정순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Barad, Karen, "Agential Realism: Feminist Interventions in Understanding Scientific Practices", *Science Studies Reader*, Mario Biagioli (ed.), New York: Routledge, 1999, pp.1-11.
- _____,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Signs*, Vol.28 No.3, Gender and Science: New Issu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pp.801-831.
- _____,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niversity Press, 2007.
- Foster, Hal, "An Archival Impulse", *October*, Vol.110, MIT Press, 2004, pp.3-22.
- Fraser, Nancy, *Justice Interruptu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Postsocialist" Condition*, New York: Routledge, 1997.
- Gamble, Christopher N., Joshua S. Hanan & Thomas Nail, "What is New Materialism?", *Angelaki*, Vol.24 No.6, 2019, pp.111-134.
- Haraway, Donna, *Staying with the Trouble*, Duke University Press, 2016.
- Harris, Anne M. & Stacy Holman Jones, *The Queer of Things: Performance, Affect, and the More-Than-Human*, Lexington Books, 2019.
- Rasmussen, Søren, "Anarchival Scripts", *Capacious: Journal for Emerging Affect Inquiry*, Vol.2 Nos.1-2, OPEN HUMANITIES PRESS, 2020, pp.186-205.
- Rouse, Joseph, "Feminism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ientific Knowledge", *Feminism, Science,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J. Nelson (ed.), Kluwer Academic Pub, 1997, pp.195-215.
- _____, *Engaging Science: How to Understand its Practices Philosophically*, Cornell Univ Press, 2010.
- Slaby, Jan & Christian von Scheve (eds.), *Affective Societies: Key Concepts*, Routledge, 2019.

3. 기타자료

(PC로 교정형태 미리 선택), 『매일경제』, 1990.5.27.

〈권인숙 “14주 낙태는 역사적 퇴행…낙태죄 전면 폐지 개정안 발의할 것”〉, 『경향신문』, 2020.10.7.

〈성전환판결엿갈려혼신〉, 『조선일보』, 1990.6.30.

〈성형수술의 패션화 시대〉, 『경향신문』, 1990.6.15.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참사…시작은 80년대 초음파 검진〉, 『중앙일보』, 2019.11.30.

〈청주지법성전환1호〉, 『경향신문』, 1990.6.30.

〈호주제 폐지 이끌어낸 여성 100인 “낙태죄도 전면 폐지하라”〉, 『경향신문』, 2020.9.28.

“시기별 인구정책: 1990-2000”, 〈국가기록원-인구정책〉

(<http://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policy2000.do>)

루인, “Queering up history: 가장 소란스러운 아카이브”, 〈한국퀴어아카이브 쿼어락〉, 2019.8.

(<http://www.zineseminar.com/wp/issue02/%ED%8A%B8%EB%9E%9C%EC%8A%A4-%EC%97%AD%EC%82%AC-%ED%80%B4%EC%96%B4%EB%A7%81-%EC%95%84%EC%B9%B4%EC%9D%B4%EB%B8%8C/>)

Abstract

Agent “M”

-The Apparatus of “Hate” and Human or Non-Human Beings as Living Dead

Kwon, Doo-Hyun(Dong-A University)

This study is an attempt to connect television drama *M*, which deals with abortion issues, with theoretical focus such as materiality, relativity, and agency, to understand diffractively as an cartography of *agential reality*. According to Karen Barard’s *Agential Realism*, Television drama *M* is a sociocultural phenomenon produced by the agential intra-actions of material-discursive apparatuses such as medical technology, ghost stories and legends, and male-affect.

The 1990s repeatedly revealed “hate” through apparatuses such as technology, discourse, and affect, which are directed at women’s gendered bodies. The material-discursive practice of plastic surgery and abortion proves that the agential reality surrounding the body is closely intertwined with medical technology, as well as with the genderized hate. Another related material-discursive phenomenon is rediscovery of the legend and fad of the ghost story, which is also produced from the hate of the denaturalized body, which is once again expanded and reproduced. Appearing in this environment of affect, *M* enacts diffraction, which is based on backlash, lacking posthuman implications for the materialization of the techno-body.

M puts humanistic assumptions about “Man” as a universal definition, historically framed and defined in context. But it is not universal and it is gendered. The current time when the political turmoil surrounding medical technology, discourse, and bodily matters is violently intra-acted is the time to carefully account and respond to the alternative definitions of human beings that *M* has rejected.

(Keywords: Agent, Agential Realism, Performative Materialism, Diffraction, Abortion, Gender, Affect, Hate, Technology, Drama, *M*)

논문투고일 : 2020년 12월 29일
심사완료일 : 2021년 2월 3일
수정완료일 : 2021년 2월 9일
게재확정일 : 2021년 2월 15일